

로동신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2호 【루게 제24735호】주제 103(2014)년 11월 18일 (화요일)

승리의 신심에 넘쳐 올해전투목표수행에 더 큰 박차를!

철령아래 청춘대지에 결사관철의 정신 내려친다

고산과수농장 능력확장공사에 펼쳐나선 군인건설자들과 618건설돌격대원들

고산과수농장 능력확장공사에 펼쳐나선 군인건설자들과 618건설돌격대원들이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폭풍처럼 내달릴 각오를 안고 펼쳐나선 단단한 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최근 한달동안에 이들은 10여km구간의 8만여㎡의 도로포장공사를 끝내고 60km의 쇠그물올라리 생산하여 30km를 설치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또한 3만 5000여대의 콩크리트지대를 생산하고 계획보다 1.4배이상 되는 2만 9000여대를 세웠으며 50여의 환장을 생산하였다. 계획된 120여대의 살림집보수와 파이프보관고 기본골조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사람같이 펼쳐나섰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이들의 비상한 각오와 열정으로 여러 대상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맞게 전투목표를 면밀히 세우고 완강한 돌격전을 벌려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공사방향을 옮겨 정하고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여 모든 단위 일군들이 현장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도록 적극 떠맡아주었다. 그리고 시공, 감독 일군들에게 분담을 정확히 주고 그들이 현장에 놀러앉아 기술적 지도를 짜고들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알아보며 제때에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였다.

인민군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일군들은 도로포장을 군민협동작업으로 해제끼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그리고 군민의 정신력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제기일에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방도들을 찾고 실천해나갔다. 군인건설자들은 무슨 일이나 화약에 불이 달린 것처럼 단숨에 정신으로 도로포장을 해제갔다.

최고물올라리생산과 설치전투도 흥이 크게 벌어졌다. 쇠그물올라리생산 일군들과 생산자들은 자검지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기술을 혁신하여 증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었다.

합격복도러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에서 바란다면 열백밤을 메서라도 기어이 해내고야 마는 창조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쇠그물올라리설치를 힘있게 내밀었다. 러단에서는 콩크리트지

운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총공적전이 힘있게 벌어졌다. 합격복도러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앞선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기동세우기전투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남도러단에서 살림집보수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합격복도러단에서는 도와의 긴밀한 연계밑에 기능공대원을 든든히 꾸리고 공장별작업을 전문화함으로써 36동에 72세대의 살림집보수공사를 질적으로 끝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정영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일수록 필승의 신념과 비상한 각오를 더 굳게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투쟁을 벌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군인건설자들과 618건설돌격대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높은 뜻대로 고산과수농장 능력확장공사를 제기에 무조건 완공할 결사의 각오를 안고 맡겨진 대상공사과제를 끝내기 위한 총돌격전에 한

정척일군들이 이미 준비된 선전선동수단들을 총집중하여 전투장마하에서 총결사전을 벌이기 위한 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렸다. 현장지휘부와 각 러단단정치일군들은 작업대상과 조건에 맞게 방송선전차활동, 기능예술훈동대활동, 직관선전을 화선식으로 진행하여 돌격대원들

에 1700여m구간의 도로포장을 해제갔다. 평양시, 황해북도, 함경남도러단에서는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이고 설비와 기공수들의 리용률을 높이며 도로포장일정계획을 매일 1.3배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전력공업성러단에서는 도로포장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보장대책을 앞질러 세워나감으로 공사과제수행에 적극 기여하였다.

합격복도러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에서 바란다면 열백밤을 메서라도 기어이 해내고야 마는 창조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쇠그물올라리설치를 힘있게 내밀었다. 러단에서는 콩크리트지

지대세우기를 남김없이 끝내고 올라리조공사에 력량을 집중하는 한편 조립을 전문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계획된 2550여m의 쇠그물올라리 설치를 남김없이 끝냈다. 량강도광업연합기업소러단에서는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콩크리트지대생산에 계속 힘있게 내밀었으며 평양시러단 강동군대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한달동안에 50의 환장을 앞질러 생산보장하였다. 그리고 모

든 단위에서 콩크리트지대세우기전투를 힘있게 내밀어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평안북도, 황해남도, 함경남도러단들에서 살림집보수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합격복도러단에서는 도와의 긴밀한 연계밑에 기능공대원을 든든히 꾸리고 공장별작업을 전문화함으로써 36동에 72세대의 살림집보수공사를 질적으로 끝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정영철

필요한 나무모들과 관상적가치가 있는 나무모들을 키워내며 대하여 말하였다. 다른 나라들에서 들여온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풍토순화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회자들은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애국열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을 인민의 락원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나무모생산기지를 확장하여 더 많은 나무모들을 생산하며 우리 나라의 특성에 맞는 나무심기 및 관리방법을 완성할뿐아니라 용제관리조성에



년간계획수행을 위해 총돌격

천내지구관광연합기업소에서

천내지구관광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당원들이 대조전투장태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줄 열의에 넘쳐 일터마다에서 편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펼쳐나선 연합기업소의 탄부들은 이달안으로 연간 석탄생산계획을 끝낼 목표를 내걸고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로동당 제8차 상임집단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지하막장들에 깊이 들어가대중의 심정에 불을 지피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후방공급사업에 힘있게 뛰어들어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나게 하고있다. 당위원회는 지도밑에 기업소 참모부에서는 석탄중산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제관장을 높이는 데에서 찾고 여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생산전망이 좋은 새 탄밭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고있다.

연합기업소의 일군들은 현장에 전투지휘부를 전개하고 석탄생산으로부터 설비와 자체보장에 이르기까지 생산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연합기업소적 인력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문천관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17일현재 연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탄광의 일군들은 갱벌사회주의 중산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면서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실속있게 하여 탄부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힘있게 수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전차량과 승리경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여러가지 합리적인 제관방법을 받아들이고 운반능력을 훨씬 높여 매일 맡겨진 석

탄생산계획을 1.2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탄광에서는 석탄생산이 늘어 나는데 맞게 운반조직을 짜고들어 캐낸 석탄을 지체없이 끌어내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삼천탄광의 일군들은 작업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짜고들며 매일 계획보다 더 많은 석탄을 캐내도록 함으로써 탄광적으로 연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도록 하였다. 천내탄광에서도 생산조건이 어려운 속에서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려일으켜 석탄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탄광의 모든 갱도에서는 다음과같은 위대한 결투보수, 운반설비들에 대한 절점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연합기업소적 연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연합기업소의 일군들은 현장에 전투지휘부를 전개하고 석탄생산으로부터 설비와 자체보장에 이르기까지 생산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연합기업소적 인력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문천관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17일현재 연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탄광의 일군들은 갱벌사회주의 중산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면서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실속있게 하여 탄부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힘있게 수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전차량과 승리경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여러가지 합리적인 제관방법을 받아들이고 운반능력을 훨씬 높여 매일 맡겨진 석

탄생산계획을 1.2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탄광에서는 석탄생산이 늘어 나는데 맞게 운반조직을 짜고들어 캐낸 석탄을 지체없이 끌어내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삼천탄광의 일군들은 작업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짜고들며 매일 계획보다 더 많은 석탄을 캐내도록 함으로써 탄광적으로 연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도록 하였다. 천내탄광에서도 생산조건이 어려운 속에서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려일으켜 석탄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탄광의 모든 갱도에서는 다음과같은 위대한 결투보수, 운반설비들에 대한 절점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연합기업소적 연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연합기업소의 일군들은 현장에 전투지휘부를 전개하고 석탄생산으로부터 설비와 자체보장에 이르기까지 생산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연합기업소적 인력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문천관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17일현재 연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탄광의 일군들은 갱벌사회주의 중산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면서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실속있게 하여 탄부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힘있게 수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전차량과 승리경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여러가지 합리적인 제관방법을 받아들이고 운반능력을 훨씬 높여 매일 맡겨진 석

탄생산계획을 1.2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탄광에서는 석탄생산이 늘어 나는데 맞게 운반조직을 짜고들어 캐낸 석탄을 지체없이 끌어내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삼천탄광의 일군들은 작업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짜고들며 매일 계획보다 더 많은 석탄을 캐내도록 함으로써 탄광적으로 연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도록 하였다. 천내탄광에서도 생산조건이 어려운 속에서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려일으켜 석탄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탄광의 모든 갱도에서는 다음과같은 위대한 결투보수, 운반설비들에 대한 절점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연합기업소적 연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조업을 앞둔 어랑천 2호발전소

어랑천발전소건설장에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당지가 크고 작업량이 방대한 어랑천 2호발전소건설을 계획보다 앞당겨 끝내고 발전설비들의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조립을 전문화하는 사업을 위한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다.

2호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조업일일을 앞당기기 위해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방대한 조업수조와 물길굴복구를 맡은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발전소조업일일을 앞당길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였다.

도청년돌격대러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지반침하로 첩판로들을 옮겨야 하는 방대한 과업을 제기되자 제일먼저 복구현장에 집중투자를 집중하고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였다. 이들은 복구의 후한속에서도 함마와 정대로 인망을 깨내고 마대과 맞들이로 토량을 운반하면서 방대한 량의 굴착공사를 짧은 기간에 해제갔다. 부령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한달여가 되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지열한 용접전투를 벌려 첩판로해제와 조립을 기한전에 끝냈다.

당, 행정일군들은 용접공들과 친신을 같이하면서 높은 기동성을 요구하는 첩판로용접을 하루 10m이상씩 진행해나갔다. 그리하여 100일은 성취를 거머쥐었다고 하던 첩판로조립과 용접을 계획된 날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는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켰다. 혁신의 불길은 물길굴복구건설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최원학동무는 비롯한 도건설지휘부일군들과 도청년돌격대러단 지휘관들, 돌격대원들은 수심3m구간의 물길굴이 붕괴되자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물길굴안으로 용약 뛰어들어 물길굴복구를 끝내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못하고 웨치면서 과감한 돌격전을 벌리였다. 이들은 물길굴안을 오고가며 수심3m의 토량을 처리하고 콩크리트타입전투를 힘있게 내밀어 물길굴복구를 짧은 기간에 해제갔다. 조업수조와 물길굴복구전투장에서 떠오른 혁신의 불길은 어랑천 2호발전소 전력생산자들을 위한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장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도청년돌격대러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도건설지휘부와 조립을 기한전에 끝냈다. 당, 행정일군들은 용접공들과 친신을 같이하면서 높은 기동성을 요구하는 첩판로용접을 하루

어랑천발전소건설장에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당지가 크고 작업량이 방대한 어랑천 2호발전소건설을 계획보다 앞당겨 끝내고 발전설비들의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조립을 전문화하는 사업을 위한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다. 2호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조업일일을 앞당기기 위해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방대한 조업수조와 물길굴복구를 맡은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발전소조업일일을 앞당길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였다. 도청년돌격대러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지반침하로 첩판로들을 옮겨야 하는 방대한 과업을 제기되자 제일먼저 복구현장에 집중투자를 집중하고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였다. 이들은 복구의 후한속에서도 함마와 정대로 인망을 깨내고 마대과 맞들이로 토량을 운반하면서 방대한 량의 굴착공사를 짧은 기간에 해제갔다. 부령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한달여가 되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지열한 용접전투를 벌려 첩판로해제와 조립을 기한전에 끝냈다. 당, 행정일군들은 용접공들과 친신을 같이하면서 높은 기동성을 요구하는 첩판로용접을 하루

어랑천발전소건설장에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당지가 크고 작업량이 방대한 어랑천 2호발전소건설을 계획보다 앞당겨 끝내고 발전설비들의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조립을 전문화하는 사업을 위한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다. 2호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조업일일을 앞당기기 위해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방대한 조업수조와 물길굴복구를 맡은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발전소조업일일을 앞당길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였다. 도청년돌격대러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지반침하로 첩판로들을 옮겨야 하는 방대한 과업을 제기되자 제일먼저 복구현장에 집중투자를 집중하고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였다. 이들은 복구의 후한속에서도 함마와 정대로 인망을 깨내고 마대과 맞들이로 토량을 운반하면서 방대한 량의 굴착공사를 짧은 기간에 해제갔다. 부령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한달여가 되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지열한 용접전투를 벌려 첩판로해제와 조립을 기한전에 끝냈다. 당, 행정일군들은 용접공들과 친신을 같이하면서 높은 기동성을 요구하는 첩판로용접을 하루

어랑천발전소건설장에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당지가 크고 작업량이 방대한 어랑천 2호발전소건설을 계획보다 앞당겨 끝내고 발전설비들의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조립을 전문화하는 사업을 위한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다. 2호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조업일일을 앞당기기 위해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방대한 조업수조와 물길굴복구를 맡은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발전소조업일일을 앞당길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였다. 도청년돌격대러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지반침하로 첩판로들을 옮겨야 하는 방대한 과업을 제기되자 제일먼저 복구현장에 집중투자를 집중하고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였다. 이들은 복구의 후한속에서도 함마와 정대로 인망을 깨내고 마대과 맞들이로 토량을 운반하면서 방대한 량의 굴착공사를 짧은 기간에 해제갔다. 부령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한달여가 되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지열한 용접전투를 벌려 첩판로해제와 조립을 기한전에 끝냈다. 당, 행정일군들은 용접공들과 친신을 같이하면서 높은 기동성을 요구하는 첩판로용접을 하루

어랑천발전소건설장에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당지가 크고 작업량이 방대한 어랑천 2호발전소건설을 계획보다 앞당겨 끝내고 발전설비들의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조립을 전문화하는 사업을 위한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다. 2호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조업일일을 앞당기기 위해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방대한 조업수조와 물길굴복구를 맡은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발전소조업일일을 앞당길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였다. 도청년돌격대러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지반침하로 첩판로들을 옮겨야 하는 방대한 과업을 제기되자 제일먼저 복구현장에 집중투자를 집중하고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였다. 이들은 복구의 후한속에서도 함마와 정대로 인망을 깨내고 마대과 맞들이로 토량을 운반하면서 방대한 량의 굴착공사를 짧은 기간에 해제갔다. 부령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한달여가 되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지열한 용접전투를 벌려 첩판로해제와 조립을 기한전에 끝냈다. 당, 행정일군들은 용접공들과 친신을 같이하면서 높은 기동성을 요구하는 첩판로용접을 하루

어랑천발전소건설장에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당지가 크고 작업량이 방대한 어랑천 2호발전소건설을 계획보다 앞당겨 끝내고 발전설비들의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조립을 전문화하는 사업을 위한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다. 2호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조업일일을 앞당기기 위해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방대한 조업수조와 물길굴복구를 맡은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발전소조업일일을 앞당길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였다. 도청년돌격대러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지반침하로 첩판로들을 옮겨야 하는 방대한 과업을 제기되자 제일먼저 복구현장에 집중투자를 집중하고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였다. 이들은 복구의 후한속에서도 함마와 정대로 인망을 깨내고 마대과 맞들이로 토량을 운반하면서 방대한 량의 굴착공사를 짧은 기간에 해제갔다. 부령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한달여가 되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지열한 용접전투를 벌려 첩판로해제와 조립을 기한전에 끝냈다. 당, 행정일군들은 용접공들과 친신을 같이하면서 높은 기동성을 요구하는 첩판로용접을 하루

연합기업소적 인력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문천관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17일현재 연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탄광의 일군들은 갱벌사회주의 중산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면서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실속있게 하여 탄부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힘있게 수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전차량과 승리경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여러가지 합리적인 제관방법을 받아들이고 운반능력을 훨씬 높여 매일 맡겨진 석

탄생산계획을 1.2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탄광에서는 석탄생산이 늘어 나는데 맞게 운반조직을 짜고들어 캐낸 석탄을 지체없이 끌어내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삼천탄광의 일군들은 작업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짜고들며 매일 계획보다 더 많은 석탄을 캐내도록 함으로써 탄광적으로 연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도록 하였다. 천내탄광에서도 생산조건이 어려운 속에서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려일으켜 석탄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탄광의 모든 갱도에서는 다음과같은 위대한 결투보수, 운반설비들에 대한 절점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연합기업소적 연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연합기업소의 일군들은 현장에 전투지휘부를 전개하고 석탄생산으로부터 설비와 자체보장에 이르기까지 생산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연합기업소적 인력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문천관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17일현재 연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탄광의 일군들은 갱벌사회주의 중산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면서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실속있게 하여 탄부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힘있게 수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전차량과 승리경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여러가지 합리적인 제관방법을 받아들이고 운반능력을 훨씬 높여 매일 맡겨진 석

탄생산계획을 1.2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탄광에서는 석탄생산이 늘어 나는데 맞게 운반조직을 짜고들어 캐낸 석탄을 지체없이 끌어내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삼천탄광의 일군들은 작업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짜고들며 매일 계획보다 더 많은 석탄을 캐내도록 함으로써 탄광적으로 연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도록 하였다. 천내탄광에서도 생산조건이 어려운 속에서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려일으켜 석탄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탄광의 모든 갱도에서는 다음과같은 위대한 결투보수, 운반설비들에 대한 절점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연합기업소적 연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연합기업소의 일군들은 현장에 전투지휘부를 전개하고 석탄생산으로부터 설비와 자체보장에 이르기까지 생산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연합기업소적 인력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문천관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17일현재 연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탄광의 일군들은 갱벌사회주의 중산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면서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실속있게 하여 탄부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힘있게 수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전차량과 승리경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여러가지 합리적인 제관방법을 받아들이고 운반능력을 훨씬 높여 매일 맡겨진 석

탄생산계획을 1.2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탄광에서는 석탄생산이 늘어 나는데 맞게 운반조직을 짜고들어 캐낸 석탄을 지체없이 끌어내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삼천탄광의 일군들은 작업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짜고들며 매일 계획보다 더 많은 석탄을 캐내도록 함으로써 탄광적으로 연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도록 하였다. 천내탄광에서도 생산조건이 어려운 속에서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려일으켜 석탄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탄광의 모든 갱도에서는 다음과같은 위대한 결투보수, 운반설비들에 대한 절점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연합기업소적 연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연합기업소의 일군들은 현장에 전투지휘부를 전개하고 석탄생산으로부터 설비와 자체보장에 이르기까지 생산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연합기업소적 인력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문천관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17일현재 연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탄광의 일군들은 갱벌사회주의 중산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면서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실속있게 하여 탄부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힘있게 수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전차량과 승리경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여러가지 합리적인 제관방법을 받아들이고 운반능력을 훨씬 높여 매일 맡겨진 석

탄생산계획을 1.2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탄광에서는 석탄생산이 늘어 나는데 맞게 운반조직을 짜고들어 캐낸 석탄을 지체없이 끌어내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삼천탄광의 일군들은 작업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짜고들며 매일 계획보다 더 많은 석탄을 캐내도록 함으로써 탄광적으로 연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도록 하였다. 천내탄광에서도 생산조건이 어려운 속에서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려일으켜 석탄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탄광의 모든 갱도에서는 다음과같은 위대한 결투보수, 운반설비들에 대한 절점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연합기업소적 연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사로 씨야련방방문을 위하여 출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사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동지가 로씨야련방을 방문하기 위하여 17일 특별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특사일행으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노광철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 리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과 관계일군들이 함께 떠났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리수용 외무상, 리봉남 대외경제성, 김성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알렉산드르 제모닌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특사일행을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어 온 나라를 수립화, 원림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자

중앙양묘장 종업원들의 열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앙양묘장 종업원들의 열기모임이 17일에 진행되었다. 김정준 국토환경보호상, 관계부문, 중앙양묘장 일군들,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어 온 나라를 수립화, 원림화하는데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토환경보호상과 중앙양묘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중앙양묘장 일군들, 종업원들이 모임을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어 온 나라를 수립화, 원림화하는데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토환경보호상과 중앙양묘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중앙양묘장 일군들, 종업원들이 모임을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어 온 나라를 수립화, 원림화하는데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토환경보호상과 중앙양묘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중앙양묘장 일군들, 종업원들이 모임을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어 온 나라를 수립화, 원림화하는데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토환경보호상과 중앙양묘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중앙양묘장 일군들, 종업원들이 모임을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어 온 나라를 수립화, 원림화하는데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토환경보호상과 중앙양묘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중앙양묘장 일군들, 종업원들이 모임을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어 온 나라를 수립화, 원림화하는데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토환경보호상과 중앙양묘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중앙양묘장 일군들, 종업원들이 모임을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어 온 나라를 수립화, 원림화하는데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토환경보호상과 중앙양묘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중앙양묘장 일군들, 종업원들이 모임을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어 온 나라를 수립화, 원림화하는데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토환경보호상과 중앙양묘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중앙양묘장 일군들, 종업원들이 모임을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어 온 나라를 수립화, 원림화하는데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토환경보호상과 중앙양묘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중앙양묘장 일군들, 종업원들이 모임을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어 온 나라를 수립화, 원림화하는데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토환경보호상과 중앙양묘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중앙양묘장 일군들, 종업원들이 모임을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어 온 나라를 수립화, 원림화하는데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토환경보호상과 중앙양묘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중앙양묘장 일군들, 종업원들이 모임을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어 온 나라를 수립화, 원림화하는데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토환경보호상과 중앙양묘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중앙양묘장 일군들, 종업원들이 모임을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어 온 나라를 수립화, 원림화하는데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토환경보호상과 중앙양묘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중앙양묘장 일군들, 종업원들이 모임을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어 온 나라를 수립화, 원림화하는데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토환경보호상과 중앙양묘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중앙양묘장 일군들, 종업원들이 모임을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어 온 나라를 수립화, 원림화하는데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토환경보호상과 중앙양묘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중앙양묘장 일군들, 종업원들이 모임을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어 온 나라를 수립화, 원림화하는데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토환경보호상과 중앙양묘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중앙양묘장 일군들, 종업원들이 모임을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어 온 나라를 수립화, 원림화하는데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토환경보호상과 중앙양묘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중앙양묘장 일군들, 종업원들이 모임을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어 온 나라를 수립화, 원림화하는데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토환경보호상과 중앙양묘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중앙양묘장 일군들, 종업원들이 모임을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어 온 나라를 수립화, 원림화하는데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토환경보호상과 중앙양묘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정론

참으로 멋있는 시대

1

지금은 날과 달이 아니라 낮과 밤이 다르게 새 소식이 들려오고 사변이 터지는 희한한 세월이다.

시대의 번, 누구는 그것을 세계계몽을 뒤흔든 조건의 금메달식으로 말하고 누구는 모란봉악단의 노예복판으로 말하며 또 누구는 물고기산 쌍아가는 사회주의바다향기로 말한다. 우리는 그우에 또 하나의 경사, 조국의 아름다움을 더하려고 한다.

여기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이 솟은 대동강반의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경사로로 10월의 그 아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다녀가신 46층 살림집에 오르니 황홀경을 펼칠 수도의 일만경이 한눈에 굽어보인다.

바로 이곳에 서서여 우리 원수님께서는 한없는 시를 읊으시듯 말씀하시었다. 정말 멋있다고, 평양의 모습이 날로 웅장 화려하게 변모되고있다고 하시며 변형하는 조국의 아름다움 오늘과 내일을 안아보시던 열세위인의 크나큰 웅지와 최열의 세계를 가슴에 새길수록 한없는 적정에 휩싸이게 되는 우리들이다.

멋있는 시대! 스스럼없이 터져나오는 이 불덩이같은 심장의 분출속에 주체건축의 대변영기와 더불어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식 사회주의 문명에 대한 열렬한 찬가이다. 김정은은 사회주의강성국가,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며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대의 변화는 건축에서 뚜렷이 표현된다. 건축만큼 나라의 발전면모를 직관적으로, 종합적으로, 웅변적으로 보여주는것은 없다. 건축은 조국의 모습을 가꾸는 아름다움의 창조이고 인민의 꿈을 전하는 안내자이다. 그것은 사회발전의 패일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말할수 있다.

건축, 이것은 우리는 조국의 솟구치는 기상을 함을 말한다. 이것으로 인민의 부귀영화를 말하고 이것으로 사회주의의 미래를 말한다. 건축으로 본 조선의 모습, 참으로 그것은 심취될수록 세인을 감동시키는 기적으로 찬탄되고 인구의 지성이 머릿속 일만큼 고상한 문명으로 가득찬 아름다움의 결정이다.

대동강기슭만 둘러보자. 뚝배기장 쌍기둥을 이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며 노동자들의 궁전이라고 불리우는 김정수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초고층에 불아경을 자랑하는 창천거리, 뿔타스지붕에 나타난 들어섬은 인민아외비상장과 부평전, 전설속의 동화세계같은 평양음악원, 애육원 등으로 하여 마치 이 일대는 조선의 현대건축성곽전시를 방불케 한다.

어찌 보면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그야말로 백전백승을 펼쳐서 영웅조선의 역사를 집대성한 대기념비이다. 온 나라가 사회주의부귀영화의 금방석이라고 찬성을 울리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며 온하과대학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는 우리의 살림집건설이 도달한 새로운 비약의 높이를 보여준다.

호수가에 내려앉은 백조마냥 특색있는 외관을 날개처럼 펼치고 선 연풍과학자후양소의 독특한 모습, 대화문의 해돋이공원에 눈부신 주도로 유명한 마시평스키장의 절경, 안락으로 멋진인민 문수놀이장의 다기능건축형태, 상징마크부리 특색있는 오요소수마다 경탄을 자아내는 메이리사격관의 개성적인 건축미, 현대미와 자연미를 결합한 미림승마구락부의 풍류스러운

모양, 우리 나라 산업시설의 본보기로 일떠선 10월8일공장의 웅장한 자태, 아이들의 호열인 충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의 다채로운 풍경...

그 모든것이 다 주체성과 민족성, 독창성과 편리성, 조형예술성이 구현된 걸작품들이다. 하나하나 짚아보려고 해도 아홉찬 그 많고 많은 자랑스러운 건축물들이 수도 평양만이 아닌 온 나라 곳곳에 일떠섰다. 더우기 그것은 대상들이 불과 3년동안에 일떠섰다고 생각하니 우리 스스로도 놀랄 정도이다.

10월을 주름잡은 《마시평수도》도, 조선 사람의 슬기와 기상, 본래를 시위한 조선속도도 다름아닌 건설분야에서 창조되고있으니 지나온 3년은 그야말로 희한한 건축물에 반하면서 흘러온 세월, 건축혁명의 복소리와 더불어 흥성거리고 날아가고 하였다. 건축으로 흘러온 날과 달은 우리 조국의 지난 3년의 일백이고 3년의 꿈의 기억이며 우리 시대의 3년의 새 모습이다.

물론 건축의 발전 그자체도 놀랍고 그로 하여 아름다워진 조국의 모습도 경이적이다. 그보다 더 큰 변혁은 세계를 보는 우리의 마음이 커지고 매 사람들, 온 사회가 문명의 높이에 빠른 속도로 확고히 올라선것이다. 건축과 더불어 사회주의부귀영화의 꽃바다 펼쳐지고 현대적인 문화경쟁생활기자들이 곳곳에 꾸려지는것과 동시에 우리 생활속에 문명강국의 아름다움 쫓아 꽃피었다.

그야말로 우리 인민은 지금 세계일주를 하지 않아도 제 나라, 제방에서 현대문명을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대륙너머의 수많은 사람들이 최상급의 스키문화를 누리려고지 지경박을 나다니며 우리 인민은 내 나라의 마시평스키장에서 누구나 스키신을 신고 초급, 중급, 고급수준을 따라 마음껏 놀거기를 날린다. 수도 한복판에 바다물을 끌어다놓고 끓여먹여주는 판막하는가 하면 엘도라도식물놀이장에 서 어른, 아이 할것없이 물보라속에 잠겨 행복에 웃고 떠든다. 어느덧 온 나라에 고급된 로라스케트바탕도 건축과 더불어 화려한 새 문명이고 아이들의 흥성부여 열거사를 함께 갖추어놓고 교육과 보건의 혜택을 동시에 부여해주는 현실도 새시대 건축과 더불어 차폐된 도 한가지 북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상류층만이 거머들려지며 하는것으로만 생각했던 귀족운동의 주인공도 되어보면서, 희한한 살림집을 쓰고있던 서인민들은 사회주의부귀영화만 바라 이런 것이구나 하는 행복감에 한껏 취해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도, 로동당민제소리도 건축의 대변영기와 더불어 더 높이 터져나왔다. 이 땅우에 희한한 건축물들이 솟아나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이 사회주의문명에서 살게 될 주인공답게 개명되어갔다.

아름다운 건물들을 보고 쓰고살면서 옷차림으로부터 언어생활, 음식문화, 거리와 마을 꾸러기에 이르기까지 생활을 대하는 눈이 북아졌고 꿈도 더 커지고 애국의 로부도 불어차졌다. 건축과 더불어 일어났던 새 문명바람은 사람물속에 남아있던 흐리터분한 일본새, 뒤떨어진 생활의 낡은 때를 말끔히 쓸어버리는 방식세설기와의 같은 역할을 높였다.

한 나라, 한 민족을 문명개화시키는에는 오랜 시간과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큰 패를 건축의 힘으로 세월을 뛰어넘어 말없이 실현하고있으니 오늘의 건설의 일대 번영기야말로 21세기 인간개조의 또 하나의 소리는 혁명이고 보이지 않는 빛발이다. 선군조선의 건축의 힘은 이렇게 크다. 건축으로 하여 시대의 리듬과 속도, 모양새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일신되고있으니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주체건축은 약동하는 조선의 얼굴이고 변영의 기상이다.

건축과 사회, 건축과 인간을 가장 리상적으로 결합시켜 문명국의 패일을 앞당기는 이런 기적은 오직 사회주의만이 가져다줄수 있다. 건축물마다에 그것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초와 지반이 있다면 그림에는 해당 사회제도의 정치의 본질이 놓여있다. 돌이켜보면 노예사회는 노예주들의 무덤으로 자기의 발자취를 후세에 전하였고 암흑의 긴긴 봉건시대는 여러 류파의 종교사회를 일떠세우으로써 자기의 역사를 땅우에 기록하였다.

수백만 인민의 죽음과 피로 살뜰 자본주의는 자기의 범죄의 역사를 은행 잔간이 불은 뻔뻔스러운 마천루들과 눈뜨고 차마 볼수 없는 빈민굴로 기록하여왔다. 자본주의가 인류건축사를 내려다보며 제아무리 《인도주의적인 건축》, 《인간적인 건축》을 떠들어도 그것은 역사를 기만하고 인민대중을 우롱하는 궤변일뿐이다.

진정한 인간적인 건축은 오직 근로인민대중이 주인된 사회주의하에서만 실현가능한 한것이며 바로 그 본보기가 사회주의조선에서 이루어지고있다. 인민의 부리를 첫자리에 놓는 이 땅에서는 누구나 문명을 누려고 최상의것을 다갈이 누리고 자본주의억만장자들도 부러워할 눈부신 부귀영화를 다같이 누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이 건축에서 주장하는 사회주의 본래이다. 이것이 끊임없는 창조와 투쟁으로 마중가는 인민의 리상향이다.

우리의 건축은 그래서 아름답다. 인민의 것이어서 기적적인것이고 사회주의적인 것이어서 불멸의 가치를 가지는것이다. 이 땅에 일떠선 건축물들을 한곳에 모아 놓을수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사회주의문명국의 축소판으로, 인민대중중심의 호화로 온 세상의 표본으로 될것이다.

건축은 고도의 창조이고 예술이다. 나라의 물질, 인적, 지적자원이 동원되는 이 거창한 사업은 막강한 경제적적재력과 문화적적재를 요구한다.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의 든든한 안락함, 20세기 문예부흥의 창조한 우리 인민의 높은 지성도가 오늘 날의 번영기를 추동하였다는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우리의 건축물에 스민 사연이 너무나 뜨겁고 이 땅에 흘러간 세월의 이야기가 너무나 절절하다. 건축의 대변영기. 이 말을 외우는 우리의 눈가에 어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해빛같은 영상이 뜨겁게 떠오르는것인가.

시대의 창조물들을 찾아 우리는 참으로 많은 곳을 다녀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어디서나 똑같이 울리는 목소리가 있었다. 《우리 원수님께서 몸소 지도를 펼쳐가시며 개척의 첫걸음을 내시고 퍼져나가는 파랑자후양소입니다.》 《우리는 그저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그이께서 찍어주신 점과 부호, 선대로만 시공하였을뿐입니다.》 《원수님께서 글씨 여기 창천거리의 초고층살림집 옥층에까지 올라오셨습니다. 누구도 가볼수 없었던 못된 바람소리를 두고도 마음쓰셨으니...》

문명을 자랑하는, 행복을 노래하는 인민의 마음은 이렇게 뜨거웠었다. 인민은 오직 인민만을 말한다. 그 인민의 목소리를 빌어 우리 오늘 목격했 터진다. 창조로 아름다운 내 조국의 모습, 인류문명의 상상봉에 올라 세계를 굽어보는 조선의 새 모습은 그대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모습이다.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선군조선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은 그대로 우리 원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대지에 온넉과 땅, 피와 정으로 쓰시는 조국찬가이다. 그이께서는 건축으로 조선이라는 이 대지를 완전히 새로운 조선식문명의 발을 같이놓으셨으며 인류가 리상향한 행복의 천지를 펼쳐놓으셨었다.

로동과 과학기술, 예술적창작의 종합체로 일컫는 건축의 일방적인 의미로써는 그이의 무한대한 창조적 세계를 다 노래할수 없다. 우리 시대의 건축! 그것은 또 한분의 창조의 거장이 품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타는 리상과 꿈, 빛나는 예지와 열정의 결정체이고 숭고한 인생관의 정화이다.

여기에 천만의 가슴을 세차게 울리는 철세위인의 뜨거운 진정의 고백이 있다. 《나라의 재부가 하나하나 늘어날 때 마다 언제나 장관님게 보어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지워지지 않는 명물로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명물, 바로 이 한마디가 다 말해준다. 그이의

가슴속에 자나캐나 불길치는 녀민이 무엇인가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리상을 꽃피우는 것, 바로 이것이 그이의 불타는 소원이요 창조의 총적목적이다. 되새겨보면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첫 페이지는 우리의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쓰셨었다. 일제가 남겨놓은 식민지적기형성을 불살라 버리고 조선식문명의 새 터전을 닦아주신분도, 우리 인민이 전쟁의 재더미를 털고 일어 나 원수들의 그 무수 《100년설》을 짓부수며 사회주의문명의 기둥을 박게 해주신분도, 사대와 교조로 물젖은 뼈치꺼를 들어내고 인민이 바라는 따뜻한 보급자리, 사회주의리상촌을 펼쳐주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조선을 안겨주시려 그처럼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땅우에 로동당시대의 평양번영기를 수놓으셨었다. 보다 좋아질 오늘을 내다보시고 총대로 지킨 이 땅우에 선군절령과 같은 새 세계 문명의 불씨들을 심어주시며 굵둥이가 수도 한복판에서 뛰어노는 새 풍경이며 바다물이 흘러드는 물놀이장과 같은 희한한 새 생활의 전당도를 펼쳐주신 우리의 장군님이시었다.

철세위인들의 그 역사를 누구보다 가슴깊이 새기고 창조의 대전을 진두에서 이끌어 조선의 21세기 새 기적을 안아오시는분이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다. 금수내태양궁전을 수행영성의 대기념비로 더욱 숭엄하게 꾸리던 날에도, 온 나라 곳곳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실 때에도 그이의 마음속에 언제나 내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할 불타는 맹세가 끓어넘어졌다.

이 땅에 일떠선 창조물들의 사명이 천가지, 만가지라 하라. 그보다 창조물들에 똑같은 이름을 단다면 그것은 아마도 철세위인의 《열화같은 총정의 기념비》, 《고결한 도덕의리 기념비》 일것이다. 기적우에 총정이 있었다.

자신에는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인민이 장군님의 영상으로 안겨온다고, 장군님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일을 잘해나가겠다는 생각뿐이라고 하신 우리 원수님이시거늘 태양을 받드는 높이에 인민을 올려세우신 이런 위인의 총정이 과연 어떤 기적적인 창조지 한것인가.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

우리 건축이 오늘 고급문서가 들어보지 못한 이름으로 세기의 명마루에 올라서게 된것은 바로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에 비친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 인생관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우리 원수님께서 새 건축물들을 보시며 제일 기뻐하시는 때는 과연 언제였던가. 그이께서 연풍과학자후양소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신것처럼 그 순간은 바로 인민, 바로 우리들을 대 사람관에서 합적받을수 있다 그 기적이 여겨지지는 그 순간이다.

세상에 이런분이 어디 계사. 인민을 위해 쌓으신 그런이의 공적은 그 무엇으로써도 계산할수 없으리만 오히려 바치신 진정적신듯 스스로 인민에게서 정수를 받는 심정에 자신을 세우시는 이런 전설같은 이야기를 언제 들어보았던가.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에 기든 그 합적기준은 세상에 없는 우리의것이요 우리 인민이 현대문명의 상상봉에 올랐다고 자부할수 있는 바로 그 높이이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건설에서 《이쯤하면》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신다. 최고 또 최고! 새것 또 새것! 이것이 건축에 비친 우리 원수님의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대한 인민부부의 높이이다.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이 이 그림 듯 강렬한바늘이시기에 그이께서는 하루 24시간이 언제나 모자랐고 인민을 위한 길에서는 천리도 지척이었으며 인민을 위한 사색과 창조는 언제나 즐겁기만 하시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도대체 언제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보고드린 형상인들을 보아주신 시간은 보통 밤 12시, 새벽 1시, 3시, 4시였습니다. 이렇게 온 밤 꼬박 형성안을 지도해주시고도 이른아침에는 또 뚝한 건설장을 찾곤 하셨습니다.》 인민의 이런 뜨거운 체힘의 한복판에 철세위인의 가슴뜨거운 건축일화로 빛나는

113건의 형성안에 대한 이야기! 113건, 위유기조차 빠르던 수자이다. 온 나라의 천만까지 크고작은 일을 다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 한개 건설대상을 두고도 이렇게 많은 형성안을 지도해주셨었으니 그이께서 밤은 또 얼마나 많이 지새우시었을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 가르치심을 주시었을것인가.

113건, 정녕 그것은 인민을 위한 창조로서는 총처럼 만물을 모으시는 우리 원수님의 불타는 사색과 열정의 수백, 수천시간, 수만번의 회고 점이 합쳐진것과도 같은 또 하나의 불덩이이고 또 하나의 뜨거운 생명체였다. 금수라도 들러올것만 같다. 인민들에게 한시바빠 행복의 보급자리를 안겨주시려 탄강없는 계단도 두개, 세계적 나는 뜻이 절고 오르시던 발자속소리가, 몸소 종이우에 그림을 그리다가시며 건축의 묘리를 가르쳐주시던 그이의 옷자락에 감겨들던 플라도의 모래바람소리가, 연풍호기슭 건설장의 험한 길을 성큼성큼 걸어가시며 시공의 묘안을 가르쳐주시던 가슴뜨거운 그날의 음성이... 눈앞에 이르었다.

역수로 쏟아지는 비속에 흥백 젖어들던 그이의 옷자락이며 인민의 가슴에 무겁게 매달리던 그이께서 신으셨던 신발의 흙덩이, 아슬한 공중삭도에 제일먼저 오르시어 그 안전성을 확인하시던 마시평의 그 뜨거운 겨울날... 정녕 이 땅에 솟아오른 건축물들은 인민을 위해서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시려는 우리 원수님의 지극한 그 정성이 하늘끝에 닿아 굽어진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인민들에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명의 꽃방석을 안겨주시려는 불타는 김정일 울리던 그이의 불같은 심장의 독속 《한시바빠, 한시바빠》 세 세월을 주름잡는 《마시평 속도》, 조선속도도 날고있는것이고 시작부터 끝까지 인민들과 후대들을 위한 건축을 주장하시는 그이의 투철한 복무정신에 반들러 선 편리성, 선 미학적성, 선 후대관이라는 새로운 시대에요 태어난것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

바로 이것이 그 어떤 최첨단기술로도 흉내 내내고 따라올수 없는 철세위인의 사랑에 받들려 솟아오른 인민을 위한 천단의 건축물이기때문이다. 인민이며, 후손대이며, 잊지 마시라.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대들의 기쁨을 위해 우리 원수님 바치신 사랑과 헌신의 그 자족자족을, 온 한해 강행군에 계시면서 인민들에게 끝없는 행복의 금방석만을 안겨주신 우리 원수님의 그 크나큰 로고로. 력사는 흘러가고 세대는 바뀌어도 건축만은 남아있다. 건축이 자 살아있는 력사이고 후손대대가 보게 될 오늘날이다.

이 땅에 백년, 천년이 흐른 뒤 우리 후손들은 오늘의 건축물들을 보며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대해 알게 될것이고 또 그에 대해 이렇게 칭송할것이다. 위대한 김정은시대 인간들은 건축으로 사회주의문명국의 새 모습을 그려냈고, 제국주의자들과 싸워 이겨 마침내 부귀영화를 누리었고, 건축으로 마침내 세계를 딛고 올라섰다고. 아름다웠던 우리 시대, 구름우엔 참새도 목탄꽃핀 이 강산에 행복의 금방석을 펼쳐놓은 천하제일강산 내 조국여!

세월의 끝까지 빛을 뿌리라. 끊임없는 비약의 정기를 끝없이 펼쳐라. 참으로 멋있는 우리 시대는 건축으로 백두산대국의 만년대계를 세우시고 후손대대가 길이 복락할 행복의 무동도원을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무궁도록 영광을 드린다. 인민은 그 땅에서 모든 꿈 이루어가리라. 휘황찬란한 우리 조국 만세!

이 땅에 백년, 천년이 흐른 뒤 우리 후손들은 오늘의 건축물들을 보며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대해 알게 될것이고 또 그에 대해 이렇게 칭송할것이다. 위대한 김정은시대 인간들은 건축으로 사회주의문명국의 새 모습을 그려냈고, 제국주의자들과 싸워 이겨 마침내 부귀영화를 누리었고, 건축으로 마침내 세계를 딛고 올라섰다고. 아름다웠던 우리 시대, 구름우엔 참새도 목탄꽃핀 이 강산에 행복의 금방석을 펼쳐놓은 천하제일강산 내 조국여!

세월의 끝까지 빛을 뿌리라. 끊임없는 비약의 정기를 끝없이 펼쳐라. 참으로 멋있는 우리 시대는 건축으로 백두산대국의 만년대계를 세우시고 후손대대가 길이 복락할 행복의 무동도원을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무궁도록 영광을 드린다. 인민은 그 땅에서 모든 꿈 이루어가리라. 휘황찬란한 우리 조국 만세!

이 땅에 백년, 천년이 흐른 뒤 우리 후손들은 오늘의 건축물들을 보며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대해 알게 될것이고 또 그에 대해 이렇게 칭송할것이다. 위대한 김정은시대 인간들은 건축으로 사회주의문명국의 새 모습을 그려냈고, 제국주의자들과 싸워 이겨 마침내 부귀영화를 누리었고, 건축으로 마침내 세계를 딛고 올라섰다고. 아름다웠던 우리 시대, 구름우엔 참새도 목탄꽃핀 이 강산에 행복의 금방석을 펼쳐놓은 천하제일강산 내 조국여!

세월의 끝까지 빛을 뿌리라. 끊임없는 비약의 정기를 끝없이 펼쳐라. 참으로 멋있는 우리 시대는 건축으로 백두산대국의 만년대계를 세우시고 후손대대가 길이 복락할 행복의 무동도원을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무궁도록 영광을 드린다. 인민은 그 땅에서 모든 꿈 이루어가리라. 휘황찬란한 우리 조국 만세!

나가야 할 건축대강을 내놓으시고 자신께서 직접 건설주, 시공주, 창작가가 되시어 건설의 대변영기를 펼치신 전설같은 이야기는 있어보지 못하였다. 그것은 제국주의와의 포성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최대열전지역에서 한 나라 명도자가 최고사령부 작전대우에 창조의 거창한 설계도를 펼치고 건설사업을 이끄신 이야기는 오직 조선에서만 꽃필수 있는것이다. 건축의 대변영기.

그것은 우리 원수님게 있어서 조국을 세계에 떨치시려는 조선민족제일주의의 거대한 불길이며 날로 문명해지는 우리의 사회주의생활을 빼앗으려는 원수들의 정수리에 퍼붓는 수리의 불벼락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적으로만 적들을 호되게 담배시겼지 아니라 건축혁명이라는 창조적 거대한 마지로, 원수들의 코앞에서 천도개벽을 펼치는것과 같은 백운의 담력과 의지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압살과 고립의 그물을 박살내시었다.

원수들이 우리가 잘살고 문명해지는것이 그리도 배아 나사못 하나, 설비 하나 들어오지 못하게 파놓이 되어 날뛰었지만 그 배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이 과연 무엇이고 결심해서 못한것이 무엇인가. 원수들이 건물 하나,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파놓이 되어 날뛰었지만 그 배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이 과연 무엇이고 결심해서 못한것이 무엇인가. 원수들이 건물 하나,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파놓이 되어 날뛰었지만 그 배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이 과연 무엇이고 결심해서 못한것이 무엇인가.

이 땅우에 사회주의문명국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하다. 오늘날도 우리의 당중앙창가에서는 다시한번 건축혁명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광휘로운 모습을 온 세상에 힘있게 펼칠 현대한 구상이 무르익고있다. 문명국건설의 작전도를 책임진 건축가들이여, 우리 당의 이 꿈과 리상을 안고 변형하는 조국을 마음껏 설계하라. 단 하나의 점과 선, 부호를 새겨도 인민의 모든 칭찬과 수고를 압도한 우리것이 되게 하라. 하나의 건물을 완성하여도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조선식의 표본이 되게 하라. 조선의 김일성, 김정일의 나래로 더 높이 날고 조국이 열어준 활무대에 더 많은 피와 땀을 쏟아 이 조선의 아름다움을 가꾸어가는 자랑스러운 최후병이 되라.

문명한 환경, 문명한 패일은 몇몇 건축가들의 힘만으로는 가꿀수 없다. 이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조국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원예사가 되고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나의 집, 나의 거리, 나의 마을과 일터도 강성조선의 화현에 한층이 아름다운 꽃으로 단정히 자라잡을수 있도다. 자부할만큼 누구나 잘디밭을 가꾸고 울타리를 세워주며 비약하는 조국의 높이에 따라세우기 위해 지극한 정성을 바치라.

인군이라면 도시에 있는 산간오지에 있는 누구나 꿈과 리상을 세계적인 높이에 세우고 자기 건물, 자기 고장을 무동도원으로 꾸려 나갈줄 아는 건설박사, 건설만능가가 되라. 력사는 흘러가고 세대는 바뀌어도 건축만은 남아있다. 건축이 자 살아있는 력사이고 후손대대가 보게 될 오늘날이다. 이 땅에 백년, 천년이 흐른 뒤 우리 후손들은 오늘의 건축물들을 보며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대해 알게 될것이고 또 그에 대해 이렇게 칭송할것이다.

위대한 김정은시대 인간들은 건축으로 사회주의문명국의 새 모습을 그려냈고, 제국주의자들과 싸워 이겨 마침내 부귀영화를 누리었고, 건축으로 마침내 세계를 딛고 올라섰다고. 아름다웠던 우리 시대, 구름우엔 참새도 목탄꽃핀 이 강산에 행복의 금방석을 펼쳐놓은 천하제일강산 내 조국여!

세월의 끝까지 빛을 뿌리라. 끊임없는 비약의 정기를 끝없이 펼쳐라. 참으로 멋있는 우리 시대는 건축으로 백두산대국의 만년대계를 세우시고 후손대대가 길이 복락할 행복의 무동도원을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무궁도록 영광을 드린다. 인민은 그 땅에서 모든 꿈 이루어가리라. 휘황찬란한 우리 조국 만세!

이 땅에 백년, 천년이 흐른 뒤 우리 후손들은 오늘의 건축물들을 보며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대해 알게 될것이고 또 그에 대해 이렇게 칭송할것이다. 위대한 김정은시대 인간들은 건축으로 사회주의문명국의 새 모습을 그려냈고, 제국주의자들과 싸워 이겨 마침내 부귀영화를 누리었고, 건축으로 마침내 세계를 딛고 올라섰다고. 아름다웠던 우리 시대, 구름우엔 참새도 목탄꽃핀 이 강산에 행복의 금방석을 펼쳐놓은 천하제일강산 내 조국여!

세월의 끝까지 빛을 뿌리라. 끊임없는 비약의 정기를 끝없이 펼쳐라. 참으로 멋있는 우리 시대는 건축으로 백두산대국의 만년대계를 세우시고 후손대대가 길이 복락할 행복의 무동도원을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무궁도록 영광을 드린다. 인민은 그 땅에서 모든 꿈 이루어가리라. 휘황찬란한 우리 조국 만세!

이 땅에 백년, 천년이 흐른 뒤 우리 후손들은 오늘의 건축물들을 보며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대해 알게 될것이고 또 그에 대해 이렇게 칭송할것이다. 위대한 김정은시대 인간들은 건축으로 사회주의문명국의 새 모습을 그려냈고, 제국주의자들과 싸워 이겨 마침내 부귀영화를 누리었고, 건축으로 마침내 세계를 딛고 올라섰다고. 아름다웠던 우리 시대, 구름우엔 참새도 목탄꽃핀 이 강산에 행복의 금방석을 펼쳐놓은 천하제일강산 내 조국여!



창조와 건설로 날에 날마다 변모되어 가는 혁명의 수도 평양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주체건축의 새 역사를 펼친 건설의 대번영기

비약의 리정표를 마련해 준 현명한 령도

좁음으로 약화하는 이 땅에 강성국가건설사에 빛날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져 만사함을 격동시키고 있다.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속에 우리 인민들과 과학자들, 후대들을 위한 금방식과도 같은 희한한 건축물들이 눈부시게 솟아오른 오늘날의 비약 현실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건설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많이 일떠세우면 그만큼 강성국가의 기초가 튼튼히 다져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이 훌륭히 마련되게 됩니다.》

모든것이 경이적이다.

대동강변과 풍치수려한 연봉호반, 위성도시의 판에 일떠선 과학자들의 보금자리와 아이들을 위한 궁궐같은 건축물들은 볼수록 우리 건축술에 대한 긍지감이 더욱 가슴부듯이 흘러넘치게 한다.

꿈 아닌 현실로 펼쳐진 오늘날의 눈부신 기적, 문명에도 도약하는 건설의 대번영기는 과연 어떻게 펼쳐진 것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주체건축발전

사에 쌓으신 거룩한 업적을 후손만대에 빛내일 숭고한 뜻을 품으시고 수평영생건축의 새 역사를 창조하신데 이어 주제 100년대의 두번째 년들이 새겨지던 지난해에 건설의 최전성기를 편이은 대번영기로 이어나갈 웅대한 구상을 펼쳐치셨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 완공된 미림승마구락부와 마시령스키장을 비롯한 건설대상들은 주체건축을 어떤 기준과 높이에서 창조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조국번영의 새로운 리정표였다.

인민생활과 직결된 건설대상을 주체적대상으로!

새로운 조선속도 세계적수준을 통가하는 인민의 건축물들을 더 많이!

이 땅위에 하루빨리 인민의 만부이 넘쳐나는 사회주의문명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숭고한 리상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조국방우에는 경이적인 주체건축창조의 장엄한 모습이 펼쳐졌다.

모든 건설대상들의 시공주가 되어서 현재 공사대상을 위해서만도 수많은 형성안을 일일이 보여주시고 빨찌산식행렬리 강행군으로 흠뻑지날리는 건설

장들을 낮이나 밤이나 찾기도 찾아오며 온갖 심혈을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제국주의자들의 핵공갈과 위협이 걸릴기까지 감행되던 나날에 중단없이 추진된 건축창조사업은 그 자체가 선군조선의 기상을 떨치는 사회주의수호전이었다.

시대정신이 내재된 공사장들은 건설실적으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결전장이었고 신념의 대결장이었다. 긴장된 정세속에서도 조국방우에는 과연 어떤 전선의 령도가 흐른 것인가.

무비의 선군명장의 담력과 구상에 의해 시해의 외전 섬들이 천도개벽되고 가는 곳마다 이 꿈속에서도 그려보지 못했던 최첨단 살림집들과 문화휴양시설들...

오늘도 우리 인민모두가 영연히 전할 감동깊은 화폭들이 우뚝이 떠오른다.

건설부문 교육기관을 찾으시어 친히 명에총장이 되여주시고 일군들의 안목과 시야를 넓혀주시게 한 일대 사명이다.

본보기로 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의 완공은 문명한 건축환경과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게 한 일대 사명이었다.

흔히 건축물들을 두고 시대의 자욱이라고 한다.

로동당시대에 일떠선 하나하나의 건축물들이 빠짐없이 먼 훗날에 가서도 만만하게 뚜렷이

어제 그뿐이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값있는 평가속에 다방면적인 건축발전을 추동하는 건설부문의 믿음직한 범기창으로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떠올린 천리마리얼공정...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건축력사를 전성기, 대번영기로 기록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조국애, 비약과 혁신으로 일관된 공적정신에 의해 조국방우에는 세기에 빛날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놓처럼 솟아오르는 현실이 펼쳐졌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현대적인 산업시설들과 우리 인민이 꿈속에서도 그려보지 못했던 최첨단 살림집들과 문화휴양시설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속에 우리 식 건축술의 표본, 본보기로 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의 완공은 문명한 건축환경과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게 한 일대 사명이었다.

흔히 건축물들을 두고 시대의 자욱이라고 한다.

로동당시대에 일떠선 하나하나의 건축물들이 빠짐없이 먼 훗날에 가서도 만만하게 뚜렷이

파시될 기념비적창조물로 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이신 뜻에 의해 주체건축창조의 새 기준으로 정해진 선 퍼리성, 선 미학성, 선 후대관.

참으로 건설의 최전성기에 이어 새로운 대번영기가 펼쳐진 나날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건축업적이 견결히 옹호되고 대원수님들의 유훈관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진 나날이었으며 주체건축발전의 새로운 도약대가 마련된 긍지높은 나날이었다.

문명을 부르는 시대정신창조의 메아리는 크다. 내용과 형식이 심오하고 완벽한 건축의 창조는 민족자존의 정신을 높여주고 새로운 신심을 백배해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주체건축발전의 유일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친 보람찬 투쟁과정에 당이 제시한 승리의 리정표를 받아안은 건설부문 일군들과 건축가, 건설자들의 전투적기상에 의하여 주체의 사회주의건축은 최단기간에 세계적인 상상봉에 긍지높이 올라서게 되었다.

출사기자 지원 철

건축창조에 비견 지향

특색있는 형상요소와 전반적품위

건축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나날이 발전하는 선군조선의 건축술을 온 세상에 파시하는 대결작품이다. 교육장국, 대번영기 마무루를 향해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기상인양 상승감이 나게 솟구친 외부형상도 그러하지만 내부형상 또한 독특하다.

부엌과 식사실, 서재, 부부방 등 주석구수 활용을 데가 않고 살림방면도 아주 세

연봉파학자휴양소의 종합봉사소, 휴양각, 휴식터, 산보길, 다용도야외운동장 등 모든 건축물들은 사람들에게 한쪽의 아름다움 그림을 감상하는 것과는 다른 유다른 정서를 일겨준다. 특히 비탄복적이면서도 주제성, 민족성, 독창성, 편리성이 철저히 구현된 이 개개의 구성단위들을 통일적으로 결합시켜주고 있는 의의는 나날이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추며 발전하고있는 주체건축의 면모를 파시하는 또 하나의 특색 있는 화폭이다.

주체건축은 명실공히 인민대중중심의 건축이다. 왜

특별한 살림집내부장식에서의 다른 모든 세부들도 매우 높은 형상적수준에 있다. 하지만 전실입구는 뚜렷한 자기의 얼굴로 하여 살림집내부의 전반적품위를 훨씬 돋구어주고있으며 새로운 느낌을 더욱 강하게 안겨준다.

오늘날 이 땅위에 일떠서고있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만사함을 자아내고있는것은 바로 그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요소들까지 특색있는 형상들로 일관되어있는것과도 관련되어있다.

구성단위들의 통일적인 결합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길이가 수백m나 되는 의의를 따라 걸으며 그러도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휴양의 한때를 보내는 우리의 과학자들이 휴식처에 쉴새없이 다스려놓은 눈빛으로 보살피주는 어머니당의 사랑이 이 외향형성에도 뜨겁게 어려있기때문이다.

수림속에 잠겼것 같은 휴양소구내에는 걸음길들이 있다. 이 걸음길들은 모양이 아니라 청색을 띠는것으로 독특하게 처리되어있다. 걸음길들이 아니라. 그러한 실례

는 의의바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사람들은 청색을 잘아는 의의를 리용하면서 마치 숲속의 걸음길을 따라 산을 걷는것과 같은 생동한 느낌을 받아안게 되며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주변정치를 부각하게 된다.

구성단위들의 통일적인 결합, 이것들은 주제성과 민족성, 독창성과 편리성, 조형미와 실용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연봉파학자휴양소의 모습을 한 비추어주는 또 하나의 거울이라고 말할수 있다.

본사기자 김충성

늘어나는 녹색건축물

건축의 창조와 리용과정에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함을 최소화하는것은 현시기 세계적인 건축발전의 추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특색건축으로 나아가는 세계건축발전의 추세에 맞게 건설대상들을 생태환경을 좋게 하고 주변환경과 친숙하게 하는 원칙에서 설계하여야 합니다.》

녹색건축창조의 목적은 자연과 에너지를 소비함을 줄이고 오염발생을 최대한 감소시켜 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사람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건강에 이로운 조건을 보장해주는데 있다.

이런 면에서 높고 볼 때 마시령스키장과 연봉파학자휴양소 건축물들은 하나같이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형성한 주체건축의 대표작품이다.

지난 10월에 준공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지열에 의한 평탄방계계를 갖춘것은 녹색건축창조에서의 비약적인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본보기이다.

사회주의문명을 부르며 온 나라의 건설장에서 최첨단기술을 녹색건축창조의 열풍.

이 흐트란 결실은 해박하고 깊은 과학과 천리제인의 예지로 세계적인 발전추세를 통찰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 아래 이루어진 귀중한 열매들이다.

세계를 보는 눈을 띄우고 시야를 넓히도록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고 바깥세상 건설장에서 손수 그르까지 그려가시며 귀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사랑의 손길이 그 얼마나 숭고한 높이에 있었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연봉파학자휴양소를 건설하면서 지열에 의한 평탄방계계를 받아들이셨다고, 지금 세계적으로 평에너지를 적극 리용하기 위한 연구 및 도입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세계적인 수준에서 창조하라! 바로 여기에 온 나라를 하루가 다르게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전변시키는 우리 식 주체건축의 높은 경지가 있고 인민적인 건축으로서의 참모습이 비껴있다.

본사기자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천리마를 탄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진전은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을 형성한 천리마동상이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에는 그것이 일떠서던 당시의 시대상이 비친다. 하지만 우리 인민들은 천리마동상을 바라보며 흘러간 려사만을 되새기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어제도 오늘날도 변함없이 질풍같은 속도로 내달리는 조선의 모습을 보고있으며 더욱 휘황찬란할 조국의 패일을 그려보았다.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며 이 땅위에 수놓처럼 일떠서고있는 기념비적건축물마다에 또 시대를 주름잡는 천리마의 기상이 령력히 비껴있다.

지난 8월 완공단계에 이른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남달같은 엄두도 못 볼 방대한 건설과제를 짧은 기간에 수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군인건설사

들의 일부분을 높이 치하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런 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고 나라의 자랑이라고, 부강조국건설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는데 시대를 주름잡는 오늘날의 천리마건축이라는 최상급의 평가를 주시었다.

시대를 주름잡는 천리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이 명령하시려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들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올라 해내야 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시대를 주름잡는 오늘날의 천리마가!

외위볼수록 이 땅에 하루빨리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문명을 일떠세우려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좌악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걸사판행해나가고있는 우리 천만군민의 힘찬 발걸음소리가 심장을 쿵쿵 울린다.

창천지리로부터 연봉파학자휴양소에 이르러까지 주체건축의 새로운 번영기가 펼쳐진 날과 달들은 시대를 뒤늦게 비상한 속도로 특징지어진다.

우리 인민뿐아니라 온 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 건설속도는 나날이 빨라지고있으며 질적측면에서도 계속 새로워지고있다.

단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혁명의 수도 평양시에 융장화한 우리 식의 새 본보기거리, 창천거리를 보란듯이 일떠세운것은 볼과 두해전의 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 남달같은 10년이 걸려도 해내지 못할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

으로 끝냄으로써 《마시령속도》라는 새로운 시대를 빛내인 우리의 미더운 건설자들, 참다운 애국자들의 위훈에 의해 지난해에는 조국방우에 마시령스키장이 시대를 빛내이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건축물로 훌륭히 완공되게 되었다.

위로 끝냄으로써 《마시령속도》라는 새로운 시대를 빛내인 우리의 미더운 건설자들, 참다운 애국자들의 위훈에 의해 지난해에는 조국방우에 마시령스키장이 시대를 빛내이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건축물로 훌륭히 완공되게 되었다.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기상을 시위하는 격동적인 현실이었다.

지금 이 시각도 조선의 천리마는 세계를 굽어보며 하늘 높이 날고있다. 그 천리마의 주인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키워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이 땅의 영웅적인 천만군민이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고 수령, 당, 대중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똄된 우리의 일심단결이 있는 한 조선의 천리마는 어제도 오늘날도 패일도 세기를 주름잡으며 질풍같은 속도로 내달릴것이다.

본사기자

다용도, 다기능화

로동당시대의 건축력사에 아로새겨질 이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은 결코 건축미학적으로만 완벽했것이 아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건축공간의 합리적인 생활기능해결은 사람들이 혁명적 건설에 더 잘 이바지할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되며 그들의 생활에 편리성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된다.》

일반적으로 건축창조 과정에 생활기능요구를 충족시키는것은 건축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의 편리케 크게 도모해준다.

체육과 과학기술지식보급, 다

양한 문화정서생활을 동시에! 이것은 비단 최근에 몰라보던 변모된 평양체육관과 5월1일경기장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모습은 아니다.

문수물놀이장 실내건축물의 만장에는 배구장과 바드민턴장, 통구장이 설치되어있다. 한편 야외물놀이장 주변에는 로라스케트장과 모데르테구장 등 체육유희시설들이 있다. 그야말로 다기능적인 문화 및 체육복사시설이다.

어제 그뿐이라.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일류급의 휴양소 건물들과 함께 다용도체육시설을 훌륭히 갖춘 연봉파학자휴양소와 호명 못지 않은 살림방들과 상점, 약국과 도서관까지 꾸려진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이 모든것은 우리의 주체건축이 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도약하였음을 집약적으로 잘 건설해주고, 한층의 주제를 건설해도 단 순히 살림집이나 배정하는 목적에서의 건축창조가 아니라 가구를 비롯한 생활용품들과 주택지구의 문화정서생활을 담보하고 다용도로 될 건축물의 편리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도모하는것이 주체건축창조사업의 새로운 비약의 일대이다.

본사기자

건축에서 빈 공간이 없이 완벽성을 보장한것이 최근에 일떠선 문수물놀이장 건축물들의 전형적인 특징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기존의 창조방식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이 현실은 어떻게 펼쳐진 것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일군들과 설계가들이 건축에 대한 식견과 안목을 넓히도록 수많은 건축과학참고자료들을 보내주시고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설계가들이 작성한 형성안들을 일일이 보여주시며 끊임없는 로고의 자욱을 새기시었다.

지난 5월 연봉파학자휴양소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배구와 경구, 바드민턴을 할수 있게 꾸러지는 야외운동장을 겨울에 스케트도 탈수 있게 다용도체육시설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휴양소에 실내수영장도 잘 건설해주고 록화물방영실과 낚시터도 꾸러주며 목욕탕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들도 그뿐하게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사회주의문명이 현실로 펼쳐진 본보기적인 건축환경은 이렇게 마련되었다.

본사기자

건축에서 빈 공간이 없이 완벽성을 보장한것이 최근에 일떠선 문수물놀이장 건축물들의 전형적인 특징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기존의 창조방식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이 현실은 어떻게 펼쳐진 것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일군들과 설계가들이 건축에 대한 식견과 안목을 넓히도록 수많은 건축과학참고자료들을 보내주시고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설계가들이 작성한 형성안들을 일일이 보여주시며 끊임없는 로고의 자욱을 새기시었다.

지난 5월 연봉파학자휴양소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배구와 경구, 바드민턴을 할수 있게 꾸러지는 야외운동장을 겨울에 스케트도 탈수 있게 다용도체육시설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휴양소에 실내수영장도 잘 건설해주고 록화물방영실과 낚시터도 꾸러주며 목욕탕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들도 그뿐하게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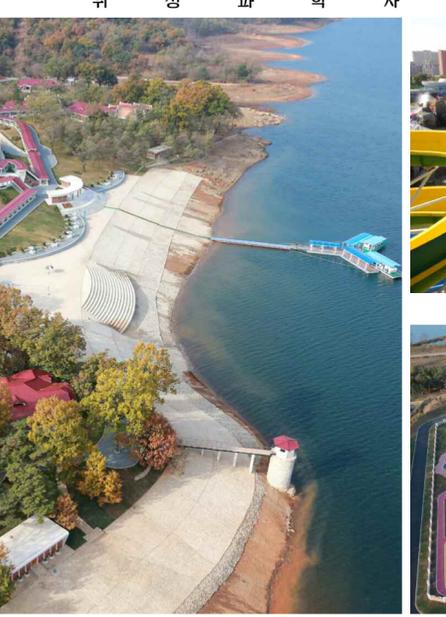
사회주의문명이 현실로 펼쳐진 본보기적인 건축환경은 이렇게 마련되었다.

본사기자

위로 성과 과학자 주택 지구

문수물놀이장

평양육아원, 애육원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연봉파학자휴양소

평양육아원, 애육원

평양육아원, 애육원

신념의 투사에게 인생의 영광도 영생도 있다

장편소설 《영원한 별》에 대하여

혁명적신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혁명의 수평의 사상과 평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혁명적리는 반드시 이룩된다는 절대적인 믿음이고 확신이다. 혁명의 이 철리를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철주동지를 형상한 장편소설 《영원한 별》(최봉우 작)은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장편소설 《영원한 별》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철주동지께서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향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시는 강감등은 화를 겪고있다. 소설은 김철주동지의 불멸의 형상을 통하여 수평의 로선과 방향관철에서는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닐 때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과업을 무조건 집행할수 있으며 수평적사용위의 참된 삶을 빛내일수 있다는 사상을 밝히고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평적사용위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연표이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빛내이기 위한 기본담보입니다.》**

주제 22(1933)년에 들어서면서 안도를 포함한 동만지역의 정세는 매우 엄중하였다. 방대한 무력으로 만주를 장악한 일제는 만주지방의 항쟁력량과 반일기운을 말살하기 위해 미처남편다. 더욱 엄중해진 것은 일부 반일부대들이 일제의 악랄한 《도벌》공세에 겁을 먹고 투항 귀순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어떤 부대들에서는 놀들의 교활한 민족간첩행동에 넘어가 조신사자들을 무력하고 의심하거 격제시하는 행위가 나타나고있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안도지역의 구국군부대의 사업에서 제일 걸린 고리는 서규오의 반일부대였다. 유격구인민들과 관계가 좋았던 서규

오의 반일부대는 정세가 급변하자 태도를 바꾸어 유격대와 조신사자들을 배척하는 길로 나가고있었다. 서규오가 그렇게 된다는 일제의 주구로 전락된 참모들의 투항구순운동가 끈질기게 작용한데 있었다.

너무도 돌변한 서규오부대를 두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일련합전선을 실현할수 없는 부대로 여기고있었다. 그러나 김철주동지께서는 서규오부대의 사업을 사명관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시고 이 사업을 직접 맡아 수행하시기를 결심하시었다.

반일부대와의 련합전선을 실현하는 것은 일제침략자들을 쳐물리치고 두 나라 인민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절박한 과업이었다. 하기에 어머니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던 첫 시기에 항일구국의 가치를 들고 일떠선 반일부대들과의 련합전선을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반일련합전선형성을 위한 투쟁을 보다 높은 단계로 승화시킬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김철주동지께서는 한몸의 위험도 이랑 갖지 않고서도 반일련합전선형성의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마음속으로 그리며 부대내부는 복잡하여도 여전히 항일구국의 가치를 내세우고있는 서규오의 반일부대를 찾아가신다. 김철주동지께서는 복잡한 사정들로 하여 번민이 깊어지자 그를 찾아가 병문안도 하시고 수백리 발길을 걸어 귀한 약에도 구해다 병구완을 해주시면서 중국 의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뜨거운 인정미로 그의 가슴에 애국의 불길을 지펴주신다. 뿐만아니라 일제에 대항 투항귀순한것을 피하는 변절자들의 정체를 낚아채 발가놓으시고 반일련합전선형성에 조종 두 나라 인민이 일제의 발걸음에서 해방되는 담보가 있다는데 대하여 힘있게 론증하시었다.

마침내 서규오는 김철주동지의 진정에 반복하게 되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일련합전선의 길에 나서게 된다. 하여 그는 유격대와 련합하여 진행했던 전투승리후 민족의 아들로서 머리를 쳐들고 땀이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다고 하면서 김일성동지의 반일련합전선 로선을 팔자기 따를것을 맹세한다.

이것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철주동지께서 항일의 진구에 아로새긴 신념의 위훈이었다. 장편소설 《영원한 별》은 수평적사용위의 끈질기게 행한 혁명적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혁명의 철리를 밝힘으로써 주체혁명의 새로운 역사적시대에 당의 유일적지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있게 새겨주고있다.

반일련합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위대한 수평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시는 김철주동지와 구당서기 김정봉에 대한 앙심을 품고있던 군사부장 리영민과 그 좌익인 《민생단》과마음을 붙인 민족배타주의자인 조가는 유격구이동문제에 제기되자 매를 만났듯이 목에 피대를 세우며 저들의 불순한 도를 실현하려고 한다. 이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성된 정치군사정세로부터 출발하여 유격구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감히 수령님의 권위를 훼손시키려는 망발까지 늘어놓는다.

바로 이때 김철주동지께서는 사명관동지의 조치는 일제의 《도벌》로부터 유격구를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조치이러는데 대하여 서리정면하게 밝히신다. 그러자 말문이 막힌 이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랑용하지 말라, 반일부대공작부장이 장군님에 대해 얕볼얼마나 하는가고 하면서 직권으로 배리누르려 한다. 그때 김철주동지께서는 자신에 대해 말할수도 있었지만 수평의 진사로서 수평의 절대적인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 그들과 끝까지 맞서싸우신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조선의 혁명가들은

마땅히 김일성동지의 혁명로선과의 도를 따라야 하며 그의 사상과 평도를 의문시하지가 않판시하는자들은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라는데 대하여 단호히 언명하시었다.

수평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의지로 뿐아니라 광시과 도덕의리로 간직하신 김철주동지께서는 그후 유격구의 식량형편이 극도에 이르렀을 때 주저없이 식량공작에 나서시며 왜놈들과의 치열한 전투과정에 장렬한 최후를 마치게 되신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인 김철주동지가 장렬하게 희생되였다는 비보에 접한 서규오는 김철주동지의 혈육을 돌보아주는 인간으로서 자기의 의무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어디서 사시는가고 물어본다.

그러나 김철주동지의 부모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 한생을 다 바치신 애국자들이며 김철주동지는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이신 김일성동지의 친동생이라는것을 뒤늦게야 알게 된 서규오는 《아, 절친하오! ...사실은 어떻게 죽는가에 따라서 흩어 질수도 있고 같이 될수도 있고. 김철주-그는 만주땅야의 별이요! 영원히 빛나는 별이요!》 하고 사나이의 오열을 터뜨린다.

장편소설 《영원한 별》은 수평적사용위를 혁명전사의 제일성으로 간직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는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사슴없이 바치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철주동지의 빛나는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수평적사용위야 얼마나 깊고 억센 뿌리를 가지고있는가를 사상에 솔직으로 밝히고있다. 하여 소설을 통하여 천만군민은 배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경애하는 현수님의 명도따라가서 완성이될 때까지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게 되는것이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철주동지께서 항일의 진구에 새기신 값없는 삶은 수평적사용위로 뛰어넘어는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영원한 별로 꽃피어 빛나게 빛날 것이다.

은 성 철

락랑구역 총성 3동 전쟁로병들

어느덧 세월은 흘러 우리의 전쟁로병들의 머리에도 흰머리가 내려앉았다.

비록 년로 보장을 받은 몸이지만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라고 웨치며 1950년대의 불비속을 헤쳐온 그 기백으로 조국방어를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로병들의 정신세계는 얼얼하다. 우리 적은 힘이나마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에 바쳐갑시다.

《포화를 헤쳐온 청춘시절은 멀리 흘러 머리에 백발을 얹었고 나라를 위하는 애국의 마음에서 애저 애저 것들수 있겠소. 우리 적은 힘이나마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에 바쳐갑시다.》

《포화를 헤쳐온 청춘시절은 멀리 흘러 머리에 백발을 얹었고 나라를 위하는 애국의 마음에서 애저 애저 것들수 있겠소. 우리 적은 힘이나마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에 바쳐갑시다.》

《포화를 헤쳐온 청춘시절은 멀리 흘러 머리에 백발을 얹었고 나라를 위하는 애국의 마음에서 애저 애저 것들수 있겠소. 우리 적은 힘이나마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에 바쳐갑시다.》

《포화를 헤쳐온 청춘시절은 멀리 흘러 머리에 백발을 얹었고 나라를 위하는 애국의 마음에서 애저 애저 것들수 있겠소. 우리 적은 힘이나마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에 바쳐갑시다.》

《포화를 헤쳐온 청춘시절은 멀리 흘러 머리에 백발을 얹었고 나라를 위하는 애국의 마음에서 애저 애저 것들수 있겠소. 우리 적은 힘이나마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에 바쳐갑시다.》

《포화를 헤쳐온 청춘시절은 멀리 흘러 머리에 백발을 얹었고 나라를 위하는 애국의 마음에서 애저 애저 것들수 있겠소. 우리 적은 힘이나마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에 바쳐갑시다.》

《포화를 헤쳐온 청춘시절은 멀리 흘러 머리에 백발을 얹었고 나라를 위하는 애국의 마음에서 애저 애저 것들수 있겠소. 우리 적은 힘이나마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에 바쳐갑시다.》

《포화를 헤쳐온 청춘시절은 멀리 흘러 머리에 백발을 얹었고 나라를 위하는 애국의 마음에서 애저 애저 것들수 있겠소. 우리 적은 힘이나마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에 바쳐갑시다.》

《포화를 헤쳐온 청춘시절은 멀리 흘러 머리에 백발을 얹었고 나라를 위하는 애국의 마음에서 애저 애저 것들수 있겠소. 우리 적은 힘이나마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에 바쳐갑시다.》

《포화를 헤쳐온 청춘시절은 멀리 흘러 머리에 백발을 얹었고 나라를 위하는 애국의 마음에서 애저 애저 것들수 있겠소. 우리 적은 힘이나마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에 바쳐갑시다.》

《포화를 헤쳐온 청춘시절은 멀리 흘러 머리에 백발을 얹었고 나라를 위하는 애국의 마음에서 애저 애저 것들수 있겠소. 우리 적은 힘이나마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에 바쳐갑시다.》

《포화를 헤쳐온 청춘시절은 멀리 흘러 머리에 백발을 얹었고 나라를 위하는 애국의 마음에서 애저 애저 것들수 있겠소. 우리 적은 힘이나마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에 바쳐갑시다.》

《포화를 헤쳐온 청춘시절은 멀리 흘러 머리에 백발을 얹었고 나라를 위하는 애국의 마음에서 애저 애저 것들수 있겠소. 우리 적은 힘이나마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에 바쳐갑시다.》

《포화를 헤쳐온 청춘시절은 멀리 흘러 머리에 백발을 얹었고 나라를 위하는 애국의 마음에서 애저 애저 것들수 있겠소. 우리 적은 힘이나마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에 바쳐갑시다.》

《포화를 헤쳐온 청춘시절은 멀리 흘러 머리에 백발을 얹었고 나라를 위하는 애국의 마음에서 애저 애저 것들수 있겠소. 우리 적은 힘이나마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에 바쳐갑시다.》

《포화를 헤쳐온 청춘시절은 멀리 흘러 머리에 백발을 얹었고 나라를 위하는 애국의 마음에서 애저 애저 것들수 있겠소. 우리 적은 힘이나마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에 바쳐갑시다.》

《포화를 헤쳐온 청춘시절은 멀리 흘러 머리에 백발을 얹었고 나라를 위하는 애국의 마음에서 애저 애저 것들수 있겠소. 우리 적은 힘이나마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에 바쳐갑시다.》

《포화를 헤쳐온 청춘시절은 멀리 흘러 머리에 백발을 얹었고 나라를 위하는 애국의 마음에서 애저 애저 것들수 있겠소. 우리 적은 힘이나마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에 바쳐갑시다.》

《포화를 헤쳐온 청춘시절은 멀리 흘러 머리에 백발을 얹었고 나라를 위하는 애국의 마음에서 애저 애저 것들수 있겠소. 우리 적은 힘이나마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에 바쳐갑시다.》

《포화를 헤쳐온 청춘시절은 멀리 흘러 머리에 백발을 얹었고 나라를 위하는 애국의 마음에서 애저 애저 것들수 있겠소. 우리 적은 힘이나마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에 바쳐갑시다.》

《포화를 헤쳐온 청춘시절은 멀리 흘러 머리에 백발을 얹었고 나라를 위하는 애국의 마음에서 애저 애저 것들수 있겠소. 우리 적은 힘이나마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에 바쳐갑시다.》

《포화를 헤쳐온 청춘시절은 멀리 흘러 머리에 백발을 얹었고 나라를 위하는 애국의 마음에서 애저 애저 것들수 있겠소. 우리 적은 힘이나마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에 바쳐갑시다.》

《포화를 헤쳐온 청춘시절은 멀리 흘러 머리에 백발을 얹었고 나라를 위하는 애국의 마음에서 애저 애저 것들수 있겠소. 우리 적은 힘이나마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에 바쳐갑시다.》

제18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

【평양 1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제18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개막되었다. 개막식이 17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었다. 한광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관제부, 체육부

문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과학, 교육부문의 200여개 단위에서 내놓은 180여건의 프로그램과 체육기자, 축경기, 악곡, 도서 및 문헌들을 비롯한 1000여건의 과학기술성과품들이 출품되었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체육부 사업을 정력적으로 영도하시며는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키도록 하고 나라의 체육을 과학적근대우에 올려세우는데 나서서 과업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당의 과학중시, 체육중시 사상을 받들고 전국 과학자, 기술자들이 나라의 체육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그는 말하시었다.

그는 모두가 최첨단과정을 더욱 힘있게 벌려 전반적인 체육종목들의 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으로 올려세우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이어 참가자들은 전시된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을 돌아보았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인민들이 좋아하는 초물제품을 더 많이

조선근적매점 초물가내작업반원들이 혼한 왕골, 비늘가지, 싸리, 오사리를 리용하여 구력, 가방, 실내화, 바구니, 키를 비롯한 수십가지의 초물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3일인민소비품전시회에서 이곳 초물가내작업반에서 생산한 초물제품들은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혼한 지방자재를 가지고 인민 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쓸모있고 값있는 초물제품들을 생산하니 얼마나 좋은가.

유기농법을 받아들일데 대한 높은 뜻을 받들고 운전군대오협동농장 인민들과 농장원들이 올해에도 눈에 많은 오리를 길러 정보당 알곡을 지난 20명의 김매기로력이 절약된 셈이었다.

왕골을 섬세하게 엮어 만든 주단, 모시와 구력, 방석, 참죽을 말려 넣은 베개를 비롯한 초물제품들이 인기상품으로 되고있으며 추위를로부터 추위를 받고있다. 초물제품의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있다. 해마다 도적으로 진행되는 8월

왕골을 섬세하게 엮어 만든 주단, 모시와 구력, 방석, 참죽을 말려 넣은 베개를 비롯한 초물제품들이 인기상품으로 되고있으며 추위를로부터 추위를 받고있다. 초물제품의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있다. 해마다 도적으로 진행되는 8월

왕골을 섬세하게 엮어 만든 주단, 모시와 구력, 방석, 참죽을 말려 넣은 베개를 비롯한 초물제품들이 인기상품으로 되고있으며 추위를로부터 추위를 받고있다. 초물제품의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있다. 해마다 도적으로 진행되는 8월

왕골을 섬세하게 엮어 만든 주단, 모시와 구력, 방석, 참죽을 말려 넣은 베개를 비롯한 초물제품들이 인기상품으로 되고있으며 추위를로부터 추위를 받고있다. 초물제품의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있다. 해마다 도적으로 진행되는 8월

왕골을 섬세하게 엮어 만든 주단, 모시와 구력, 방석, 참죽을 말려 넣은 베개를 비롯한 초물제품들이 인기상품으로 되고있으며 추위를로부터 추위를 받고있다. 초물제품의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있다. 해마다 도적으로 진행되는 8월

왕골을 섬세하게 엮어 만든 주단, 모시와 구력, 방석, 참죽을 말려 넣은 베개를 비롯한 초물제품들이 인기상품으로 되고있으며 추위를로부터 추위를 받고있다. 초물제품의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있다. 해마다 도적으로 진행되는 8월

왕골을 섬세하게 엮어 만든 주단, 모시와 구력, 방석, 참죽을 말려 넣은 베개를 비롯한 초물제품들이 인기상품으로 되고있으며 추위를로부터 추위를 받고있다. 초물제품의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있다. 해마다 도적으로 진행되는 8월

왕골을 섬세하게 엮어 만든 주단, 모시와 구력, 방석, 참죽을 말려 넣은 베개를 비롯한 초물제품들이 인기상품으로 되고있으며 추위를로부터 추위를 받고있다. 초물제품의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있다. 해마다 도적으로 진행되는 8월

왕골을 섬세하게 엮어 만든 주단, 모시와 구력, 방석, 참죽을 말려 넣은 베개를 비롯한 초물제품들이 인기상품으로 되고있으며 추위를로부터 추위를 받고있다. 초물제품의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있다. 해마다 도적으로 진행되는 8월

왕골을 섬세하게 엮어 만든 주단, 모시와 구력, 방석, 참죽을 말려 넣은 베개를 비롯한 초물제품들이 인기상품으로 되고있으며 추위를로부터 추위를 받고있다. 초물제품의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있다. 해마다 도적으로 진행되는 8월

왕골을 섬세하게 엮어 만든 주단, 모시와 구력, 방석, 참죽을 말려 넣은 베개를 비롯한 초물제품들이 인기상품으로 되고있으며 추위를로부터 추위를 받고있다. 초물제품의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있다. 해마다 도적으로 진행되는 8월

왕골을 섬세하게 엮어 만든 주단, 모시와 구력, 방석, 참죽을 말려 넣은 베개를 비롯한 초물제품들이 인기상품으로 되고있으며 추위를로부터 추위를 받고있다. 초물제품의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있다. 해마다 도적으로 진행되는 8월

왕골을 섬세하게 엮어 만든 주단, 모시와 구력, 방석, 참죽을 말려 넣은 베개를 비롯한 초물제품들이 인기상품으로 되고있으며 추위를로부터 추위를 받고있다. 초물제품의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있다. 해마다 도적으로 진행되는 8월

왕골을 섬세하게 엮어 만든 주단, 모시와 구력, 방석, 참죽을 말려 넣은 베개를 비롯한 초물제품들이 인기상품으로 되고있으며 추위를로부터 추위를 받고있다. 초물제품의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있다. 해마다 도적으로 진행되는 8월

왕골을 섬세하게 엮어 만든 주단, 모시와 구력, 방석, 참죽을 말려 넣은 베개를 비롯한 초물제품들이 인기상품으로 되고있으며 추위를로부터 추위를 받고있다. 초물제품의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있다. 해마다 도적으로 진행되는 8월

왕골을 섬세하게 엮어 만든 주단, 모시와 구력, 방석, 참죽을 말려 넣은 베개를 비롯한 초물제품들이 인기상품으로 되고있으며 추위를로부터 추위를 받고있다. 초물제품의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있다. 해마다 도적으로 진행되는 8월

왕골을 섬세하게 엮어 만든 주단, 모시와 구력, 방석, 참죽을 말려 넣은 베개를 비롯한 초물제품들이 인기상품으로 되고있으며 추위를로부터 추위를 받고있다. 초물제품의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있다. 해마다 도적으로 진행되는 8월

왕골을 섬세하게 엮어 만든 주단, 모시와 구력, 방석, 참죽을 말려 넣은 베개를 비롯한 초물제품들이 인기상품으로 되고있으며 추위를로부터 추위를 받고있다. 초물제품의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있다. 해마다 도적으로 진행되는 8월

왕골을 섬세하게 엮어 만든 주단, 모시와 구력, 방석, 참죽을 말려 넣은 베개를 비롯한 초물제품들이 인기상품으로 되고있으며 추위를로부터 추위를 받고있다. 초물제품의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있다. 해마다 도적으로 진행되는 8월

왕골을 섬세하게 엮어 만든 주단, 모시와 구력, 방석, 참죽을 말려 넣은 베개를 비롯한 초물제품들이 인기상품으로 되고있으며 추위를로부터 추위를 받고있다. 초물제품의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있다. 해마다 도적으로 진행되는 8월

왕골을 섬세하게 엮어 만든 주단, 모시와 구력, 방석, 참죽을 말려 넣은 베개를 비롯한 초물제품들이 인기상품으로 되고있으며 추위를로부터 추위를 받고있다. 초물제품의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있다. 해마다 도적으로 진행되는 8월

조국을 받드는 밀거름이 되여

없어서는 안될 사람 연탄군 연탄 2호발전소 발전기운전공 김대영동무는 지난 10여년동안 발전기운전공을 책임적으로 하여 해마다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이처럼 논에서 오리를 기르니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았다. 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논에 오리를 놓아기르면 시기를 잘 선택하고 정보당 마미수를 실정에 맞게 정해야 한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부대공작부장의 중임을 맡으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안도반일

세계가 부러워하고 칭송하는 조선의 일심단결

세계가 우리 나라에 대하여 제일 부러워하는 것은 수령, 당, 대종이 위대한 사상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뭉쳐진 우리의 일심단결이다.

지난 세기말에 어느 한 나라의 종합대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조선의 일심단결을 두고 남다른 사색을 펼치며 생각해 생각을 거듭해 보았다. 이 과정에 나는 조선의 일심단결에서 특색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의 관계는 령도를 받고 령도하는 관계이기 전에 가장 고귀한 평등을 주고 받는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이며 하나의 사상, 하나의 슬로로 이치고 운명을 함께 하는 관계이다. 조선에서처럼 당과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과 수령에게 자기 운명을 맡기고 받들어 나가는 진정한 통일단결은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가 되어 있는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이며 이 일심단결을 낳은 여기에 바로 김정일 령도자의 사랑과 인민의 정치의 위대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 수령, 당, 대종의 일심단결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인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계시고 우리가 우리는 세계 그토록 부러워하고 적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공고한 일심단결을 빛나게 실현할 수 있고 백성을 떨쳐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일심단결은 우리 당의 혁명철학이 고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시면서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하는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결합시키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일심단결에 관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우리 나라에는 수령의 두리에 사상의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굳게 뭉친 강위력한 일심단결의 대부대가 마련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심단결의 사상으로 살고 일심단결의 기상으로 전진하고 그 위력으로 겁쟁이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승승장구의 한길에 걸어들었다. 일심단결은 억만금에도 비길 수 없는 우리 혁명의 가장 큰 재무이고 제일 위대한 무기이며 이 세상 그 누가 가질 수도 흉내 낼 수도 없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다.

세계를 둘러보면 단결을 원하지 않는 정치가는 단결이 없었지만 위대한 장군님처럼 혈연의 정으로, 하나의 사상의 지리로 굳게 결합된 일심단결을 이룩한 정치가는 없다.

하기에 세계의 진보적인 인민들은 우리 장군님의 위대성을 칭송하면서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공고성에 대하여 언제나 경탄을 금치 못해왔던 것이다.

이국의 한 사회계 인사는 세계정치사를 조선인민처럼 자기 령도자와 호응도 슬겅도 같이 하고 자기 수령의 걸음걸음에 자신의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충정을 다 바치고 있는 인민에 대하여 기록하지 못하였다. 오직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사회주의조선에서만 창조될 수 있는 최한 현실이라고 격동되어 말하였다.

민족의 강대성은 령도의 크기나 인민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대중의 단결된 애였었다는 것이 우리 인민이 제국주의의 치렬한 대결속에서 확고한 령도의 리더이다.

우리의 인민은 이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심장으로 체득했기에 대를 이어 수령, 당, 대종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져 갔다.

인디아의 한 주재사상신봉자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수령, 당, 대종이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가 되어 슬겅고 움직이는 일심단결의 그 놀라운 모습은 보며 나는 무릎을 쳤다. 바로 이것이다. 수령, 당, 대종의 일심단결, 이것이야말로 조선식 사회주의의 본질적 주축이다. 조선에서는 수령, 당, 대종의 통일단결을 사회의 본질적 주축으로 확립하고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기에 사회주의를 건설해 온 지난 수십년 동안 단 한번의 정치적으로도 겪은 것이 없고 최근년간의 그 사나운 세태도 끄떡없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

모리셔스의 한 인사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나가는 우리 나라의 놀라운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주재사상이라는 지

점에서 일심단결이라는 지체대를 가진 지구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닌의 한 인사는 조선의 현실은 수령의 령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선의 가는 곳마다에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령도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 있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셨다. 진정한 이는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다. 오늘 세계 진보적인 인민들이 부러워하고 놀라워하는 것이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의 일심단결이다.

적들은 조선의 일심단결을 원자란보다 더 무서워하고 있다. 조선에 펼쳐진 일심단결은 전적으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가 낳은 빛나는 현실이다. 이 일심단결은 그 어떤 물리적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불타오르는 불길이다. 일심단결된 조선인민을 당할 자가 세상에 없다.»

세계의 수많은 인사들은 한결 같이 그 누구도 실현할 수 없는 사회의 일심단결을 이룩한 바로 여기에 위대한 정치가이신 김정일 동지의 특출한 정치철학이 있다고 높이 칭송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끝없이 칭송하고 주재조선을 열렬히 동경하는 세계인민들의 진정에 넘친 이러한 목소리들은 그들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품도, 고매한 덕망

에 대한 매혹으로부터 출발한 순결한 사상감정의 정화이며 그의 두리에 천만민이 굳게 뭉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세계가 보란듯이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쳐 나가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위력에 대한 한없는 부러움의 분출이다.

그렇다.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세계가 공인하는 최세의 정치인으로서는 불세출의 대성인이시.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처음으로 마련해주고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한층 바쳐 공고발전시키신 일심단결의 역사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님을 모시어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도성 브라질위원회는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선의 힘은 출중한 령도자를 모신 데 있다. 출중한 령도자의 열화같은 사랑은 조선의 첫째가는 국력인 일심단결의 위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치게 한다.

김일성 주석께서 마련해주신 김정일 동지께서 공고발전시키신 조선의 일심단결은 오늘 김정일 동지께서 이끌어 더욱 높은 경지에 이르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적이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령도 따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할 것이다.

김철룡

인도네시아신문 고산과수농장 소개

인도네시아신문 《인더네시안 메디아》 7일 부가 《철령아래 사과바다》라는 제목으로 고산과수농장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같은 조선훈도를 북과 남으로 갈라놓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철령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인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 동지의 선공농장인 철령아래 사과바다 농장이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무공농장을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구상하시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는 사회주의수호선의 준엄한 나날 철령을 넘으실 때마다 명길야배를 바라보시면서 인민들에게 다 많은 과일이 차례대로 익어 가지 않도록 과수농장을 대규모로 확장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이의 위대한 령도에 의해 낫나게 실현되게 되었다.

2013년 6월 고산과수농장을 찾은 김정일 동지께서는 고산과수농장 농장장사께서 마무되고 사과바다에 펼쳐져 있던 《철령아래 사과바다》라는 새로운 선군이 생겨났다고 말씀하시였다.

올해 7월 또다시 농장을 찾으신 이께서는 눈부리 아득한 고산과수농장이 건설되기를 바라며 철령아래 사과바다의 선군, 인민의 리상만이 활짝 꽃피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철령아래 사과바다》 이것이 국제사회에 주는 의미는 매우 심오하다.

철령이 선군을 의미한다면 사과바다는 사회주의부귀영화의 의미이다.

다시말하여 《철령아래 사과바다》는 선군의 덕으로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될 조선인민의 모습을 집약적이면서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다.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가면서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남부러울 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김정일 동지의 뜻이다.

그이의 숭고한 뜻은 그대로 현실로 꽃피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사실집, 장천거러, 은하과학자거러,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시령스키장을 비롯하여 최근 조선의 방방곡곡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건축물들을 보면서 세계는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될 조선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고 있다.

《철령아래 사과바다》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동이 아무런 위해도 지워진 권력을 강화하던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열어주는 사회주의 부귀영화라는 선군의 정당성을 세계와 력사앞에 뚜렷이 과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국방력 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로씨야에서 범외의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이 나라 내부상이 밝힌 데 의하면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90만건 이상의 범외행위가 적발되었다 한다.

이란에서 이란에서 11일 신행장거리 레이더를 성과적으로 시험하였다.

이 체계는 반경 2500km의 범위에서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표적들과 탄도 및 순항미사일 등을 탐지할 수 있다고 한다.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이 13일 《샤한-2》(하트프-6)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성과적으로 시험발사하였다. 사거리가 1500km인 이 미사일은 핵 및 상용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나라 군부는 미사일발사역에서 탐사사업에 장

기술지표를 재확인하고 전략 미사일구배의 작전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8년까지 나라의 전력생산을 9% 이상 증대시킬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 실현을 위해 정부에서는 앞으로 3500만kW의 전력생산을 늘려 줄 계획을 세우고 있다.

13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모잠비크에서 모잠비크에서 천연가스자원을 탐사하는 탐사팀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13일 정부가 밝힌 데 의하면 탐사팀이 장



다마스칸의 댐

《조선인민의 영원한 진로》

나이제리아단체 인터넷에 글 게재

조선인민이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한 누구도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조선은 철두철미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조선에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 있으며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인민중심, 인민사랑의 정치가 실시되고 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사회계층과 존재하지 않으며 누구나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있다.

△팔레스티나내 동맹 마흐무드 아바스씨가 11일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이스라엘의 살인만행을 규탄하였다.

이날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지역에서 항의시위에 나선 무고한 팔레스티나인을 살해한 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하나의 종교전쟁을 야기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규정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인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강제집행령을 내리고 있는 것은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규정하였다.

독립국가를 창건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그는 독립전쟁과 정적추진설을 중지하도록 이스라엘당국에 압력을 가할 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이란국회가 9일 성명을 발표하여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탄압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그는 독립전쟁과 정적추진설을 중지하도록 이스라엘당국에 압력을 가할 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요르단국왕 아브둘라 2세가 12일 한 의식에서 이 이스라엘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인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강제집행령을 내리고 있는 것은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규정하였다.

독립국가를 창건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그는 독립전쟁과 정적추진설을 중지하도록 이스라엘당국에 압력을 가할 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에볼라바이러스감염증에 의한 인명피해 확대

세계적으로 에볼라바이러스감염증에 의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12일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데 의하면 에볼라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자수는 1만 40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수는 5160명을 달하고 있다.

또한 말라에서 최근 에볼라바이러스감염증에 의한 사망자가 또 발생하였다.

이 나라 보건당국은 수도 바마코의

날강도적으로 조작한 불법무효한 《조약》

1905년 11월 15일 포더시 황궁에 기여는 이도는 고종을 만나 《1. 황제의 아비에 진국을 통치하기 위한 일본인감독을 임명할 것. 2. 각 개항장에 일본인행정관을 임명할 것. 3. 한국외교사무를 도교에 이관할 것. 4. 일본의 승낙없이 어떠한 외국(협정)도 타국과 체결할 수 없다.》는 날강도적인 내용의 《보호조약》원안을 전달하고 무조건 접수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리고는 움직일 수 없는 황궁안이라니, 만약 거절한다면 저들이 결심한대로 움직일 것이라니, 불리한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니 뉘나 하면서 위협공갈하였다.

고종황제는 《보호조약》을 승인할 때에 이도의 요구를 단호히 일축하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도는 조선봉건정부의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에 유인하여 위협공갈과 뇌유, 기만의 방법으로 굴복시켜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일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위협과 강박만으로는 정부대신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일제는 군사적힘을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무력으로 황궁안팎을 겹겹이 포위한 침략자들은 황궁안에서 군사행동을 벌여놓았다. 위압과 공포를 주자는 것이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17일 황궁에서는 《조약》문제에 관한 어전회의가 열렸다. 어전회의에서는 《조약》의 체결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의소식을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이도는 이 소식을 전달받고 만일의 경우 즉시 군대에

에볼라바이러스감염증에 의한 인명피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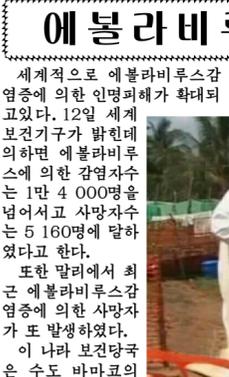
한 진로에서 일어난 간호원이 에볼라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에볼라바이러스감염증에 의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어났다. 【조선중앙통신】

에볼라바이러스감염증에 의한 인명피해 확대

에볼라바이러스감염증에 의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12일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데 의하면 에볼라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자수는 1만 40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수는 5160명을 달하고 있다.

또한 말라에서 최근 에볼라바이러스감염증에 의한 사망자가 또 발생하였다.

이 나라 보건당국은 수도 바마코의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일하는 근로자들



일하는 근로자들



일하는 근로자들

지난 세기 일제에 강도적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파쇼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한 때로부터 109년이 되었다.

1905년 11월 17일 조선봉건정부를 위협공갈하여 5개 조항으로 된 《조약》을 날조한 일제는 이것을 내주고 우리 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이로 하여 우리 나라의 막대한 인적 및 물질적, 문화적피해를 입었으며 우리 인민은 식민지노예로 굴러떨어져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일본의 일부 세력들은 과거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정당화하면서 《을사5조약》이 조선봉건정부와 《합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그 때 따라 조선의 외교권을 접수하였다는 망발을 늘어놓고 있다. 그야말로 파렴치한 날강도적책변이 아닐 수 없다.

《을사5조약》은 명백히 국제법상의 요구와 원칙을 만족하게 유린하면서 허위날조되고 일방적으로 공포된 허위문서로서 실재에 있어서 체결되지 않은 조약 아닌 《조약》이다. 《을사5조약》의 조작경위를 놓고보아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1905년 11월 조선침략의 원흉인 이도 히로부미(이등박문)가 《보호조약》을 조선봉건정부에 강요할 목적으로 조선에 기여하였다. 그는 조선황제 고종을 만나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대국을 특별히 고전하니 대사의 지위에 따라 조처하기 바란다는 오만부러운 내용이 들어 있는 일본왕의 《친서》라는 것을 전달하였다.

명령을 내릴 목적으로 하세가와대장, 사토현명대장과 함께 황궁으로 들어갔다. 황궁에 뛰어들어 이도는 돌이켜보고 하는 정부대신들을 붙들고 놓고 《조약》에 찬성할 것을 강박하였다. 이도는 대신들을 한사람씩 일으켜서 사대질을 해가면서 따졌다. 한규설장정대신이 절대로 반대한다고 하자 «나는 우리 《친왕》제의 명령을 받들어 이 임무에 임하고 있다. 제군들에게 우용당하여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신들을 위협, 강박하였다. 그때도 규설이 완강히 반대하자 그를 다른 방으로 끌어들여 후이 또는 《그들이 옹고집을 부리면 우리 일본이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서 무도한 관동이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폭행이었다. 이런 방법으로 《조약》이 성립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한 이도는 여기에 《합법성》의 괴물을 띄우기 위해 외국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일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위협과 강박만으로는 정부대신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일제는 군사적힘을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무력으로 황궁안팎을 겹겹이 포위한 침략자들은 황궁안에서 군사행동을 벌여놓았다. 위압과 공포를 주자는 것이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17일 황궁에서는 《조약》문제에 관한 어전회의가 열렸다. 어전회의에서는 《조약》의 체결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의소식을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이도는 이 소식을 전달받고 만일의 경우 즉시 군대에

조성하기때문이다. 이로부터 군대국제법과 《조약》에 관한 원조약》에서 제거하고 강제의 강행기 이루어진 모든 조약은 어떤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사5조약》은 처음부터 강압과 협박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날강도적행위로 《조약》되었다.

일본은 1905년 10월 27일에 체결한 《한국보호권확립협정》에 관한 각의 결정》에서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 것을 기본목적으로 내세우고 《조약》달조를 위한 실무적절차와 함께 조선주둔군사령관의 참여와 군사적강제행동을 계획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서 군사적힘의 사용을 필수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말해준다. 실제로 일제가 조선주둔군을 수도에 집결시키고 황궁을 포위한 상태에 있어 협정한 군사행동을 벌였듯이 내진들을 억류해놓고 협박한 등은 국가에 대한 강제인 동시에 엄중한 자주권침해이다.

하기에 프랑스학자 프랑시메이는 1906년에 쓴 글에서 《조약은 정정적, 유체적폭력으로써 대한제국정부에 강요된 것이며 《일본군의 압력에 의하여 조약의 조인을 강제당한... 특수한 사항으로 하여 나는 주장한다. 1905년 조약의 무효를 단언한다.》고 규탄하였다.

《을사5조약》은 그 강제성으로 하여 군대국제법이나 현대국제법시기에 이르기까지 불법무효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강제집행령을 내리고 있는 것은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규정하였다.

독립국가를 창건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그는 독립전쟁과 정적추진설을 중지하도록 이스라엘당국에 압력을 가할 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요르단국왕 아브둘라 2세가 12일 한 의식에서 이 이스라엘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인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강제집행령을 내리고 있는 것은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규정하였다.

독립국가를 창건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그는 독립전쟁과 정적추진설을 중지하도록 이스라엘당국에 압력을 가할 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당시의 국제, 국내법에 비추어 볼 때 휴지장외로밖에 되지 않는 비법문서였다.

《을사5조약》은 그밖의 문서형식과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을사5조약》에는 조약의 이름조차 없었다. 《을사5조약》은 이등박문은 조약이라는 제목이 없고 서문과 조항들만 있을 뿐이다. 판색조약이 밝혀져 있지 않으면 조약문건이 아니므로 해당 조약체결대방국가의 협의에 제출할 수 없으며 서명할 수 없다. 때문에 조약도 없는 조약 아닌 이 《조약》이 일본측에서는 《한일협약》으로, 조선측에서는 《을사조약》 또는 《을사5조약》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꼽자면 꼽지 않았다.

모든 사실은 《을사5조약》이 일제가 공인된 국가관계, 국제법을 무시하고 무력에 의거하여 강제하고 위협하면서 제멋대로 날조공포된 불법무효한 비법문서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일제는 바로 이러한 날강도적인 《조약》을 내주고 조선의 주권을 강탈하였을뿐 아니라 비법적 《총독》통치를 실시하면서 력사에 그 유린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악랄한 조선인민독살정책을 강행하는 투대형대인륜적범죄를 감행하였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은 시대적요구이다. 이것을 외면하는 나라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미래도 없다. 일본은 이것을 명심하고 과거 《을사5조약》날조범죄를 성근하게 인정하고 과거청산에 나서야 한다.

리 학 남

국제체육소식

아래 배리 카야구 선수권대회 소식

아메리카야구선수권대회가 9일 그리스에서 진행되었다. 1만 3000명의 선수들과 애호가들이 참가한 이번 경기대회의 남자마라톤경기과 여자마라톤경기에서는 케냐선수들이 우승을 쟁취하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국제체육소식

아래 배리 카야구 선수권대회 소식

아메리카야구선수권대회가 9일 그리스에서 진행되었다. 1만 3000명의 선수들과 애호가들이 참가한 이번 경기대회의 남자마라톤경기과 여자마라톤경기에서는 케냐선수들이 우승을 쟁취하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국제체육소식

아래 배리 카야구 선수권대회 소식

아메리카야구선수권대회가 9일 그리스에서 진행되었다. 1만 3000명의 선수들과 애호가들이 참가한 이번 경기대회의 남자마라톤경기과 여자마라톤경기에서는 케냐선수들이 우승을 쟁취하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